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

2011 중랑
사람들



중랑구 상징물



도시브랜드

그린(Green)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나뭇잎을 이용해**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친환경적인 도시 속에서 **무한 성장하는 중랑구의 모습**을 형상화함



배 꽃

봉화산 주변에서 집단으로 재배되는 늦은 **봄의 하얀꽃**은 중랑구민의 곧은 기개와 선비정신을 나타냅니다.



느티나무

수관폭이 넓어 예로부터 정자나무, 정원수 등으로 사람들과 친했으며 성장이 빨라 **중랑구민의 발전적인 기성**을 뜻합니다.



까 치

정원수목과 공원 등 인가 근처에서 서식하는 텃새이며 **기쁜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중랑구의 새로운 발전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상상하고 실행하라.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

「창의」란 ‘뭔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열정과 관심으로 실행한다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힘이 모여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쟁력과 행정서비스로 표현되고, 상상의 제안과 실행이 창의행정으로 이어져,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친절한 조직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랑구 전 직원들은 창의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 7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이라는 이제까지 어떤 구도 이루지 못한 전설적인 기록의 달성을 비롯해 민원행정만족도 평가 A등급,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등 외부기관 평가의 2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4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민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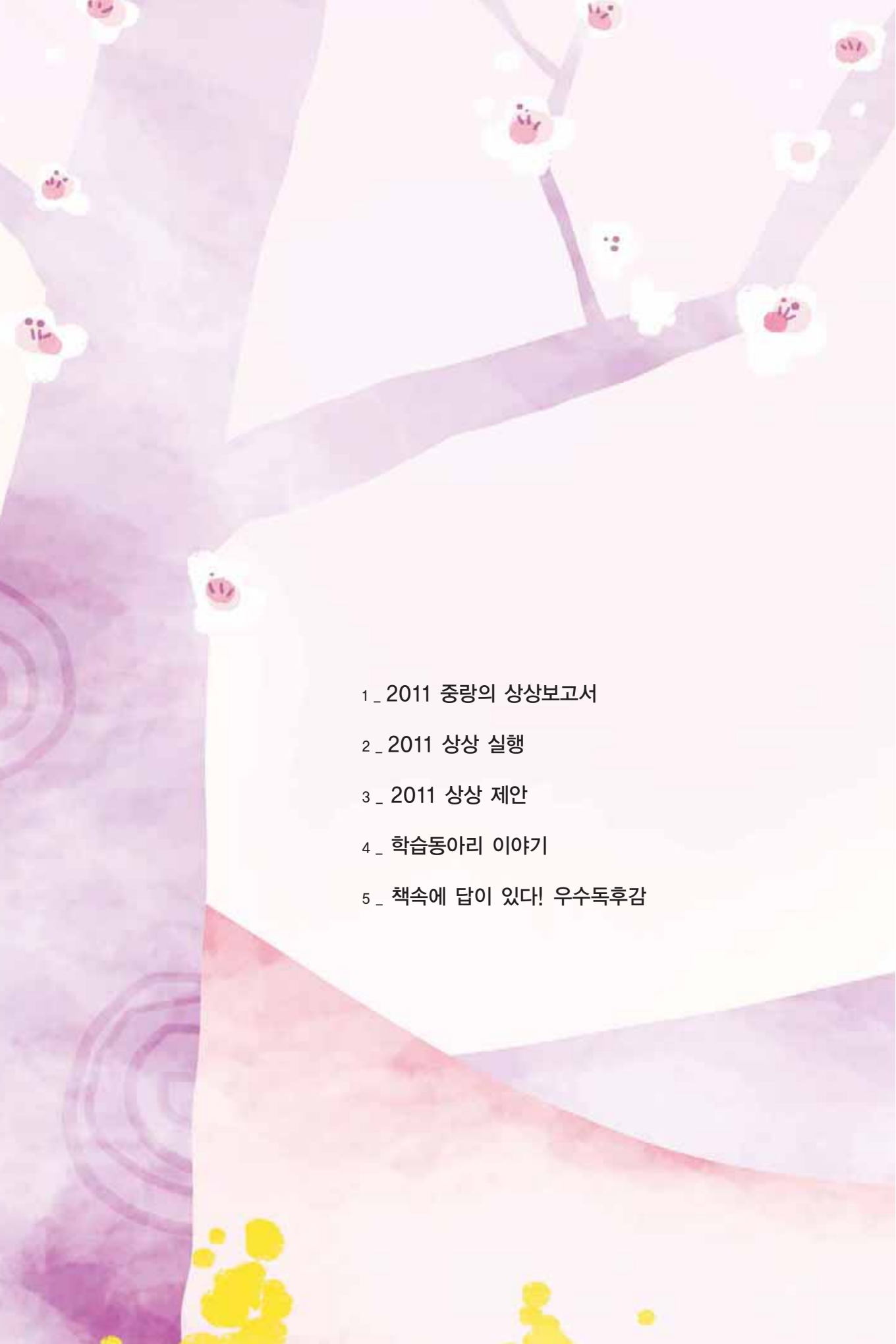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변화의 밑거름이 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하면서 이런 성과를 담아 발간하는 이 사례집에는 다양하고 소중한 창의 우수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일궈낸 변화의 성과가 우리구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행복한 미래도시 중랑’ 건설을 위해 우리구 직원 모두는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중랑구청장 문병권



1_ 2011 종량의 상상보고서

2_ 2011 상상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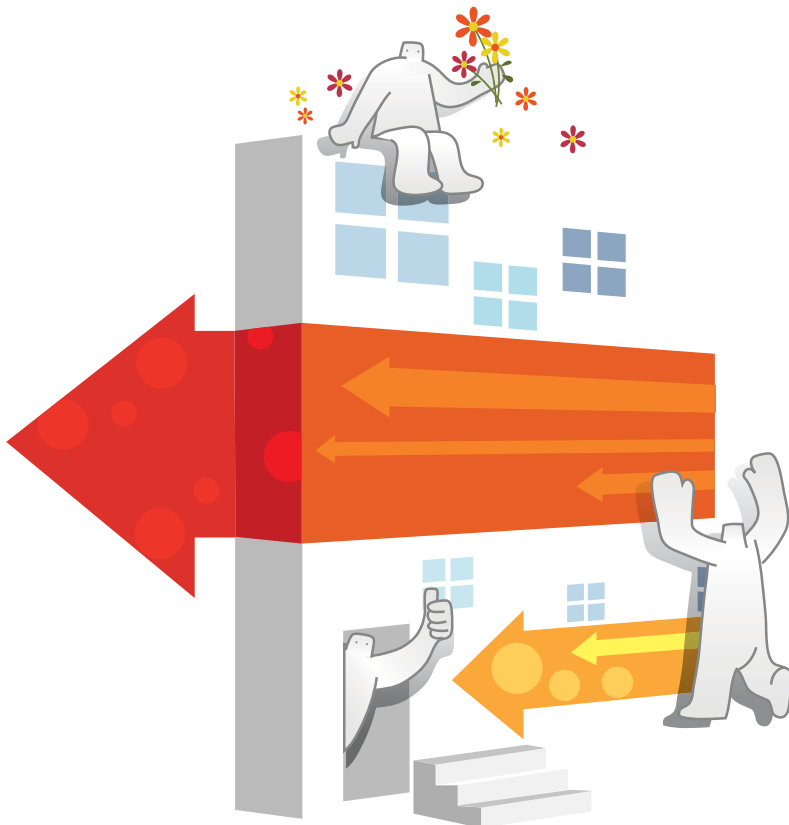
3_ 2011 상상 제안

4_ 학습동아리 이야기

5_ 책속에 답이 있다! 우수독후감

chapter 1

2011 중랑의 상상보고서



제안제도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에서 평가, 실행, 환류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구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창의아이디어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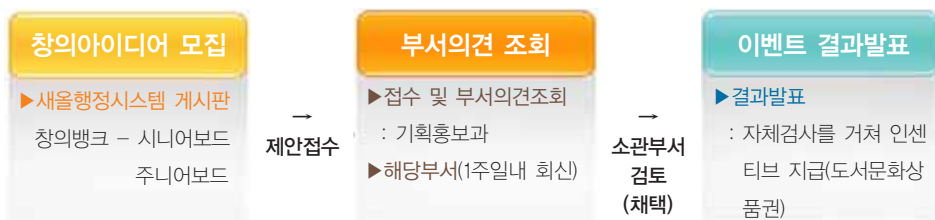
상상의 나래를 펴다 - “365창의구정! 연중 창의 아이디어 발굴”



- 일상에서 공무원들이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의뱅크 시스템** 구축
- 투명한 **오픈 시스템**으로 제안내용 및 해당부서 검토의견을 전 직원이 공유하여 중복제안이나 유사제안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 기피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

상상 분위기를 고조시키다 - “톡!톡! 아이디어 이벤트”

- 일정기간 집중 공모기간을 정해 조직의 창의분위기 활성화



상상이 모이면 희망이 커진다 - “테마 아이디어 이벤트”

- 현재 주요 관심사에 대한 테마아이디어 공모로 창의구정의 동력 마련
- 부서별로 신규 사업 추진 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아이디어 공모를 총괄로 진행
- 까다로운 양식 없이 댓글 형식으로 모집하여 참여율 높임
- 2011년 최고 인기 테마아이디어는? ‘청렴 으뜸 중랑 구현’



함께 꿈꾸는 상상이 행복하다 - “구민 창의 아이디어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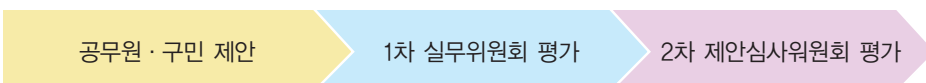
- 다양한 방법(구 홈페이지 창의광장, 우편, FAX)으로 구민들의 제안을 모집

The screenshot shows the '창의광장' (Creative Light) section of the Seoul Jongsang-gu website. It features a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like '구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and '창의광장' (Creative Light).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창의광장' and includes a section for '창의광장' with a list of ideas and their status. Below this is a table of ideas submitted by citizens.

번호	제목	제출자	담당부서	등록일	처리과일
475	충남에인 지역개발에 해결에 대한 주민제안	김00	도시환경과	2012.05.13	답변완료
469	충남에인 무단투기지역 결구한 논에 확충하는 이농주택... (4)	김00	주안생활지원과	2012.05.07	답변완료
468	서울에 있는 생활주변수대 실지로 청소년들에게 교육... (4)	김00	주안생활지원과	2012.05.05	답변완료
467	충남에인 수탁 주민신고 보상제에 관한 제언 (1)	김00	도시환경과	2012.02.01	답변완료
466	충남에인 자치단체에 걸맞는 건물고(申報제) 설치에 관한 주... (1)	김00	행정과	2012.02.09	답변완료
465	충남에인 공공복지와 주택담보대출... (1)	김00	도시환경과	2012.02.09	답변완료
464	충남에인 새주소사업 시범에 따른 추가 주민제안 (3)	김00	행정지원과	2012.02.07	답변완료

상상으로 변화와 보람의 씨앗을 싹틔우다 - “공무원 · 구민 아이디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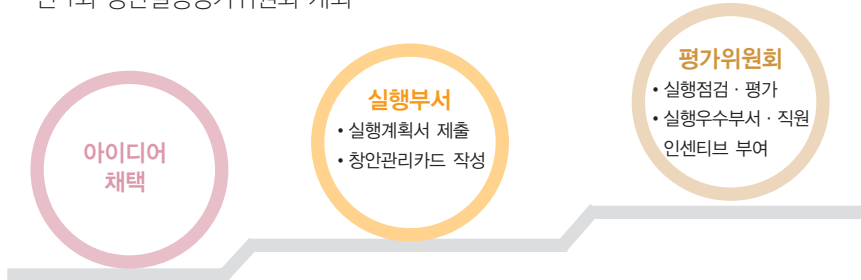
- 조직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공무원과 구민에 대한 평가 · 시상



2. 창의아이디어 실행

상상이 현실이 되다 - “창안 실행 평가”

- 발굴된 아이디어 실행 평가를 통해 좋은 제안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강화
- 연 1회 창안실행평가위원회 개최



3. 창의아이디어 확산

상상의 결실을 맺다 -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우수한 행정 실천 사례를 타기관(타자치구)에 전파
- 심사 :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서면심사 후 파워포인트 · 연극 사례 발표(2011. 12. 14)
- 발표내용 :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 우림시장 상인들이 몰려온다 “춤추는 황금소”





1. 창의학습동아리

목적 : 조직의 학습역량을 높이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며, 부문 간의 교류증진과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조직내 벽을 허물어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함

운영

- 총 14개 동아리 145명 활동
-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현안업무 위주의 학습과제 선정 후 동아리별 자율 활동
- 창의학습동아리 구성원 창의교육 실시
 -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액션 미팅 「아이디어를 창출하라!!!」



-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실시(연1회)
 - 동아리 연구 성과 발표, 시상 및 공유로 지속적인 연구·학습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
 - 2011년 우수 동아리

뉴타운	지금은 재정비촉진사업 연구 중
이(齒)사랑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키자
뮤직파크	상쾌한 음악으로 아침을 연다

2. 창의 독서 아카데미

목적 : 창의관련 및 자기계발 도서를 읽은 후 감상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발상의 전환 및 조직의 학습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함

운영

- 구 행정자료실 연중 운영 및 관심직원 책 선물 제도
- 창의도서관련 독후감 집중 공모기간 운영
- 독후감 경진대회 실시
- 우수독후감 전자책 제작



3. 혁신포스터

목적 : 직원들의 창의혁신마인드 제고와 변화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포스터 활용 창의혁신 교육(PBT)”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사고를 전파

포스터 활용교육(PBT : Poster Based Training)이란 창의혁신관련 내용의 포스터를 정기적(weekly)/장기적(long-term)으로 교체, 게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창의혁신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운영

- 구청사 내 엘리베이터 3곳의 지정된 장소 『낯은 생각을 확 바꾼시다.』에 주1회 포스터 1장씩 교체 게시



4. 창의행정뉴스게시판 운영

목적 : 창의행정 관련 뉴스 등을 게재하여 구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학습·공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긍정적·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운영

- 창의구정 운영방향 및 정책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주요현안
- 지역주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 알림(정보한마당)
- 기타 우리 구의 창의행정 성과와 최신뉴스



5. 직원 교육 활성화

목적 :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직원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운영

- 창의·변화, 봉사·윤리, 친절 등 공직자의 핵심 가치 및 직급별 리더십교육, 직무전문교육, 글로벌 마인드 교육 등 45개 과정



6. 중랑구 친절원정대

목적 : 날로 높아져 가는 구민 고객의 민원 만족도 수준에 발맞춰 민간기업 수준의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고 직원의 친절행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

운영

- 친절안다로미 : 부서별 직원 한 명씩 선발
'구민에게 친절로 감동을 주자' 는 중랑구만의 친절 CS리더

* 친절 안다로미 : '답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라는 뜻의 순우리말

- 민간 서비스 우수기관 현장을 체험하고 고객만족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고객만족경영전략을 배우고 고객만족 활동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몸소 체험
- 구 행정에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 제안
 - 고객칭찬함 설치 : 구·동 민원실에 고객이 칭찬 카드(행복드림카드) 접수
 - 약속카드 발행 : 인·허가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인 해결 약속



chapter 2

2011 상상실행



우림시장 상인들이 몰려온다 “춤추는 황금소”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

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시장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공간이었다. 엄마를 따라 항상 드나들던 놀이터 같던 곳, 변화한 시장에서 사람냄새 나는 삶을 살던 그 시절,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장은 너무나도 먼 곳처럼 우리 일상에서 차츰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시장통에서 자식들을 온전히 키워냈던 우리 이웃들은 언제부터인가 줄어드는 매출로 시름이 늘어만 가고, 사람들은 편리하고 깔끔하단 이유로 대형마트만을 이용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중랑구에선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그 대상은 중랑구 관내 우림시장이었고,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처럼 천장 비가림막 공사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마트처럼 카트를 이용하여 물건도 구매하게끔 변신을 거듭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장을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시장으로 모여 들었고, 매출도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의 시장에선 우림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우림시장 인근에 7개의 대형마트가 성업 중인 관계로 점차 매출 상승액이 둔화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원가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했다.

우림시장의 지리적 여건상 현재 중랑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시설단지와의 인접해 있어, 시장에 문화를 접목시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상인이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했다.

우림시장을 중랑구의 문화적 거점으로 활성화하여 다양한 고객들이 찾아오는 신명나는 시장으로 만들고, 고객과 상인이 문화를 매개로 공생하며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시장 만들기를 목표로 사업명 “춤추는 황금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직원, 상인, 주민, 지역 문화인이 하나가 되어 우림시장 내 소극장 ‘춤추는 황금소’를 만들고, 시장통에 공연장과 배움의 공간인 문화센터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오디션을 거쳐 극단 ‘춤추는 황금소’를 창단했고, 우림보부상단, 어린이뮤지컬교실, 우림장학금문화장터, 상인CF, 우림다문화축제, 1평 예술단, 시장통학교, 추억의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상인극단은 바쁜 일상 중에서도 틈틈이 연습한 결과 2010년 12월 우림시장 40년 회로애락의 역사를 춤과 노래에 담은 뮤지컬 ‘춤추는 황금소’를 공연



했고, 2011년 11월에는 신명나는 뽕짝뮤지컬 ‘파란만장’을 공연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인들이 옛날 보부상으로 분하여 아파트 단지와 주택밀집지역을 찾아가 시식회, 상품전시, 공연 등 역동적인 제품 홍보와 전통시장 상품권도 할인판매하는 ‘우림보부상단’은 단골고객 확보와 신규고객 창출 및 질 좋은 상품 소개로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영어뮤지컬교실’은 시장 상인과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 선발을 거쳐 영어도 공부하고 춤과 노래도 배우며 공연을 완성해 가는 공동체 작업을



와 일곱난장이'를 공연했다.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과 사회성 발달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높다. 2010년 영어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에 이어 2011년에는 영어뮤지컬 '백설공주



처음에는 인근 봉화산, 망우산 등 산객의 시장 유입을 위해 시작됐던 '등산객 주막'은 주민들의 큰 호응으로 주변 10개 단체와 연계해 자원봉사 '장학금 주막'으로 확대 운영하여, 수익금 전액을 관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 연출, 촬영, 섭외 등 전과정을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시장의 질 좋은 상품과 상점을 홍보하고, 시장내 PDP TV를 통해 방송도 하는 '상인 CF'도 대표적인 사업이다. '우리 설렁탕파티'를 확대한 '다문화 축제'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장기자랑, 민속놀이, 전통농촌 체험과 각국의 민속의상 등을 보여준다. 우리의 전통음식을 맛보게 하고 전통시장의 구경거리 등을 통해 우리문화에 한 발짝



다가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과 상인들 간에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장의 좁은 틈새 1평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공연을 펼치는 ‘1평 예술단’, 건강교실, 취미교실, 창업교실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장통 학교’도 인기가 높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장 내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리는 ‘추억의 영화관’은 고된 일상에서 짝퉁해진 마음을 달래고, 아련한 추억에 빠져볼 수 있는 자리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대하는 상인들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으로 상인들의 인식 변화가 생겼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들로선 연습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특히 그동안 시장의 주 고객과는 거리가 멀었던 20, 30대 젊은 고객들의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성과가 나타나면서 상인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와의 만남으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들 한다.

더불어 일일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일일평균 고객수가 전년 대비 7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역동적, 창의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시장의 변신'은 언론 등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성과는 구의 재정적 지원, 상인들의 의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지역 문화인들의 적극적 도움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 앞으로는 고객과 소통하는 우림시장만의 문화마케팅으로 인근에 조성중인 문화타운과 더불어 중랑구 문화산업의 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소외된 이웃 지원 분야로 확장하여, 보고 즐기는 문화가 아닌 배려하고 베푸는 지역 사랑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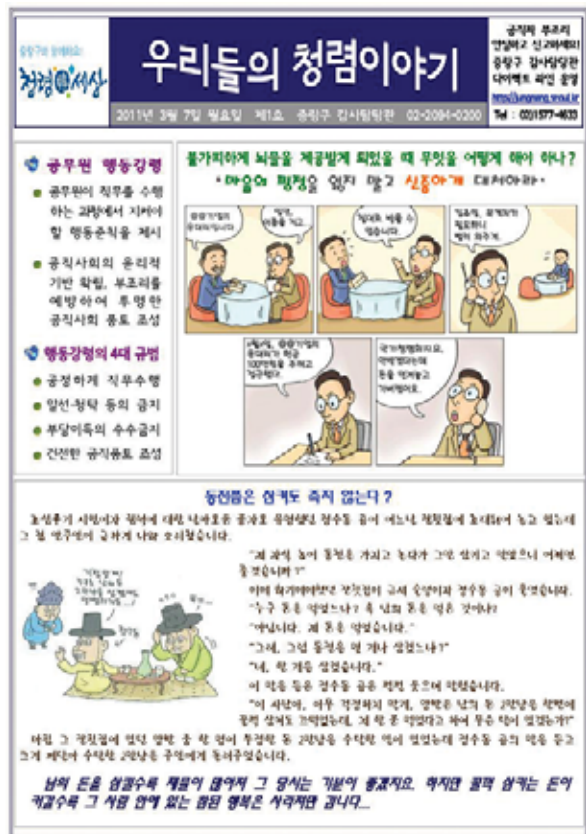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공연을 확대 실시 하고, 공연 입장료 '좀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쌀과 라면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중랑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청렴1번지 중랑!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되돌아보고 딱딱한 청렴에 대한 사고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접근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매주 월요일 구 내부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공무원 행동강령 코너에 청렴성과를 바탕으로 청렴을 고유한 직장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들의 청렴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들의 청렴이야기에는 만화로 보는 청렴 이야기를 비롯해 청렴홍보 문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역사 속 청렴이야기, 청렴상식, 청렴 가이드, 행동강령 Q&A 등 다양한 청렴관련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뇌물을 제공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만화를 통해 그 대처법을 풀어 주기도 했으며, “동전은 삼켜도 죽지 않는다?”라는 조선 후기 시인이자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로 유명했던 정수동 공의 이야기에서 잔치집 주인의 아들이 동전을 삼켜 소리칠 때 “남의 돈 2만냥을 삼키고도 끄떡없는데 무슨 걱정이나”라는 풍자를 통해 부정한 양반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는 이야기를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한 세상” 홍보 일환으로 제작한 청렴송 컬러링을 전 직원 휴대폰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구청 내에 방송 되는 청렴 아침방송을 통해 국내 외 각종 청렴뉴스와 우수사례를 비롯해 동·서양 고전의 청렴명언들과 청렴우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동영상으로 배우는 청렴교실」을 운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렴관련 동영상을 각 직능단체 및 기업 학교 등 간담회, 교육, 회의 개최시 상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중랑구와 함께해요! 청렴韓 세상” 홍보 스티커 1,000매를 제작해 구청, 동 주민센터, 학교, 체육센터 등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중랑구의 청렴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밖에도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산출금액이 적정 한지, 적절한 시공방법이 선정 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업발주 전에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약심사제를 비롯해 건설공사 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기 쉬운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척결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 및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과 계약, 건축, 위생 등 8개



청렴행정 참여엽서

▶ 중앙구청에서는 깨끗한 행정 실천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렴행정 참여엽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한 불합리한 내용이나 부조리사항을 보내 주시면 불합리한 불합치점을 만들기 위한 귀중한 덕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참여하신 내용은 부패예방을 위한 개선 자료로만 활용되기에 비밀명의로 작성하실 수 있고, 신고내용도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 문의처 : 중앙구청 감사담당관(☎ 2004-1200, FAX : 2004-0200)

주요 설문 및 신고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내용은 비밀명의로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민원 청원에 비추어 느껴진 점을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자치 구청을 방문하여 경험하신 민원은 어떤 분야입니까?**
☐ 위생 ☐ 세무 ☐ 주택/건축 ☐ 계약 ☐ 교통 ☐ 환경 ☐ 기타()

▶ **재무원은 행정서비스를 접수로 평가해 본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60점 미만 ☐ 60점~69점 ☐ 70점~79점 ☐ 80점~89점 ☐ 90점 이상

▶ **평가 점수 중에 가장 취약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기온 - 철저 불합리 ☐ 업무안내 및 공개부족 ☐ 직원 불친절 ☐ 공무원수 기대

▶ **공무원에게 처사, 친절 등을 제공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몇 회입니까?**
☐ 1회 ☐ 2~3회 ☐ 4~5회 ☐ 6~9회 ☐ 10회 이상 ☐ 없음

▶ **합의가 있으시면 제공한 처사 받은 모두 얼마 정도입니까? (총 금액) 원**

▶ **공무원에게 친절, 친절 등을 제공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몇 회입니까?**
☐ 1회 ☐ 2~3회 ☐ 4~5회 ☐ 6~9회 ☐ 10회 이상 ☐ 없음

▶ **합의가 있으시면 제공한 친절 받은 모두 얼마 정도입니까? (총 금액) 원**

▶ **가다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중앙구청**

▶ 의견제출을 위하여는 우 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도 운영 중에 있다.

구민 및 직원들이 부조리 신고 시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언제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라인과 헬프라인』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감사담당관 안심 Direct-mail 신고 ! 신고센터

운영목적

신고대상

신고보상금

신고방법

정의로운 신고 정신이 청렴@서상 을 만듭니다.

공직자의 이러한 비리를 신고하여 주세요.

- ▶ **감사담당관 다이렉트-라인 :** 주연에 공직자 비리를 신고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하거나 횡령을 제공받는 행위
 - 직무권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제청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
- ▶ **감사담당관 헬프-라인 :** 공직자가 내부비리를 신고합니다.
 - 부당한 지시 감독, 직무관련 부정행위
 - 금품 수수 및 횡령 제공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단순문서, 불친절사항 등은 일반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백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 가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신분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다이렉트-라인

신고하기 결과조회

감사담당관

헬프-라인

신고하기 결과조회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 점검을 총괄하고, 『민원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1단계 SMS 시스템부터 2단계 UMS 설문조사, 3단계 주민 만족도 측정, 4단계 청렴엽서 발송 등까지 민원업무의 전 과정에서 단 한건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규칙 등 자치 법규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평가하여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

직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100만원이상 금품수수 등 비리와 연루된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번의 부패행위에도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제도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비롯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



며,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연 2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부패제로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중랑가족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청렴서약제의 연2회 개최, 직원들의 청렴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포상으로 청렴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신문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014면 공공정책

중랑구 7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

‘민원 필터링시스템’ 효과

중랑구는 서울시 청렴시책평가, 시민 불만 처리 개선 평가, 하도급 부조리 개선 평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7년 연속 수상이다.

진기록에는 민원 필터링시스템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구는 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생활화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까지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계약·건축·위생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도 향상·점검에 주력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시스템부터 2단계 통합 메시지 시스템(UMS) 설문조사, 주민 만족도 측정, 청렴 업서 발송까지

민원업무 전 과정에서 단 한건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때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 평가해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제도도 한몫 거들었다.

부조리 신고 때 구민과 직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감사담당관 직통 헬프라인을 개설했다.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등 비리와 연루된 직원은 한번의 부패 행위에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 2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청렴서약제 연 2회 개최, 직원들의 청렴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포상으로 청렴 행정 동기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제도 눈에 띈다.

강동심기자 kangtong@seoul.co.kr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테스트 실시와 함께 공직자 품위 유지 다짐메시지 전파 등을 전개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11년 서울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청렴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전국매일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009면 종합

중랑구, 6년연속 청렴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영예'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1년도 청렴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중랑구는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를 생활화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 운영, ▲청렴도 향상 추진 분야별(계약, 건축, 위생) 태스크포스팀 구성, ▲민원필터링 시스템(1단계 SMS 시스템→2단계 UMS설문조사→3단계 주민만족도 측정→4단계 청렴엽서 발송) 운영, ▲민원업무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제 실시, ▲부패방지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제도 운영, ▲감사담당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라인과 헬프라인 개설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제 등을 실시했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강화를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서약제, 청렴마일리지제 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청렴시책평가에서 지난 2006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유례없는 성과를 이뤄내 서울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로서의 명성을 이어갔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중랑생활정보’ 스마트폰(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추진부서 | 전산정보과

중랑구 생활정보가 스마트폰 속으로 쏙!

중랑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중랑구 주민과 방문객에게 생활에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랑구의 기본현황 등 120여 가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소식과 문화행사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청 안내, 부서연락처, 주민센터, 경찰서, 무인민원발급소 등의 각종 공공기관 생활관련 정보와 문화·체육시설 및 여가정보, 관광·여행지, 생활서비스정보, 주유소 가격정보 등을 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트위터와 이메일로 주변에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통합검색 기능, GPS 지도 정보의 제공으로 주민이 찾고자 하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지로부터 가까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안내하며, 다이렉트 콜 서비스로 모든 정보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한 번의 터치만으로 바로 전화연결을 할 수 있다.

관공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의 생활서비스 정보도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관공서 및 공공기관 생활관련 정보

중랑구청 안내 및 부서별 연락처,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우체국, 보건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보육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가정교육시설, 은행, 보험, 마을금고, 종합/개인병원, (주말)약국, 무인민원발급소, 주정차(불법쓰레기) 감시 무인카메라, 종교시설,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민원 안내(쓰레기 배출, 거주자 우선 주차, 주민등록/인감, 여권민원, 가족관계(호적)민원안내,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안내(여행인증시설, 서울형어린이집, 다둥이행복카드가맹점, 방법시설, 아동청소년시설) 등

2. 문화/체육/여가 정보

문화센터, 구민회관, 문화원, 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마을문고, 공원, 어린이공원, 악수터

3. 관광/여행정보

보물, 사적, 기념물, 유형/무형문화재, 주변주차장, 버스/지하철역

4. 생활서비스정보

음식점, 숙박, 주유소 가격안내, 이·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전기전파사, 열쇠, 구두 수선, 컴퓨터수리, 종합설비, 기원, 노래방, 컴퓨터게임방, 세차장, 독서실, 카센터, 자 전거, 비디오방,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마트, 재래시장/상가, 안경점, 애완용품, 서점 문구, 의류판매점, 귀금속, 신발, 의료용품, 축산물, 화장품, 꽃가게, 가전 통신 대리 점, 중고용품, 각종 학원

5. 실시간 문화행사 정보, 구정소식

6. 중랑구 소식지



문화와 일자리가 있는 “프리아트마켓”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

문화와 장터가 만나다



프리아트마켓(free art market)은 편안함과 휴식, 문화와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하여 자치회관 동아리들의 공연과 작품 시연, 수공예 작가들의 다양한 생활창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문화예술장터이다.

주민과 생활창작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인 창조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소와 창업자금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원 등 일상의 열린 공간에서도 문화경제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30

중랑구 최초의 CB(Community Business) 사업 모델 개발

중랑구 프리아트마켓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외에도 중랑구의 문화적인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지역주민 누구나 자신만의 음악, 춤, 악기연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으로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치회관 동아리나 수공예 작가들이 생활에서 디자인한 작품을 가지고 나와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창작세계를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예술시장터이기도 하다.

면목2동 마을기업인 '한지랑 칠보랑'을 설립하여, 한지전통공예품과 칠보공예품을 생산·주문판매하고 있고, 천연비누, pop 예쁜 손글씨, 리본공예, 클레이아트, 무료가훈쓰기, 수공예작가 30여명과 수공예 작가 발굴·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작가 100여명이 참여한 점토, 핸드메이드 지갑, 금속공예, 그림엽서, 손뜨개, 패브릭 소품, 인형 악세사리, 은공예, 돌도장 등 생활창작품을 전시, 판매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일보

2011년 04월 21일 목요일 012면 서울

왁자지껄 문화예술장터 구경오세요~

중랑구, '프리아트마켓' 매주 수요일에 개장 봉수대공원서 문화공연 열고 창작품도 판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오는 10월 말까지 문화공원과 장터가 혼합된 문화예술장터를 매주 수요일마다 연다.

구는 20일부터 10월 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수산 봉수대공원에서 문화공연과 생활창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프리아트마켓(free art market)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프리아트마켓은 '편안함과 휴식, 문화와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모토로해 자치회관 동아리들의 공연과 작품 시연, 수공예작가들의 다양한 생활창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문화와 장터가 혼합되는 문화예술장터이다.

중랑구내 총 16개동 자치회

관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프리아트마켓은 면목7동 기타 동아리의 7080 음악공연을 비롯해 각종 자치회관 동아리들의 색소폰, 풍물, 무용, 민요, 난타 공연이 열렸다.

작품시연으로는 중랑구 면목2동 마을기업인 '한지랑 칠보랑'의 한지와 칠보공예 작품을 비롯한 서각, 천연비누, pop 예쁜손글씨, 리본공예, 클레이아트, 무료가훈쓰기 등이 선보였다.

아울러 수공예작가 30여명과 양성 예비작가 100여명이 참여해 점토, 핸드메이드 지갑, 금속공예, 그림엽서, 손뜨개, 패브릭 소품, 인형, 악세사리, 은공예, 돌도장 등의 생활창작품

을 전시·판매했다.

이외에도 가족,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교생활용품 교환·판매를 위한 알뜰장터가 운영됐다.

한편 중랑구 프리아트마켓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자신만의 음악, 춤, 악기연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으로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프리아트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봉수대공원을 생활과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주민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2094-0432)

전용문 기자 |j@minilbo.co.kr

그리고 가족,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알뜰장터도 운영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실속구매도 이루어진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수공예문화 저변 확산과 프리아트마켓 운영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향후 민·관 협력 사업에서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도의 자립경영 기반형 일자리 창출로 전환되어 사회적 기업육성 등 자생력을 갖춘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또한 문화공연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과 영리(공익성과 수익성)를 아울러 추구하는 마을기업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생산자와 소비층의 참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우리일보

2011년 04월 21일 목요일
011면 지역종합

중랑구, 문화와 장터가 있는 프리아트마켓

중랑구는 20일 봉화산 봉수대공원에서 문화공연과 생활창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프리아트마켓(free art market)을 개최했다.

프리아트마켓은 '편안함과 휴식, 문화와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모토로해 자치회관 동아리들의 공연과 작품 시연, 수공예작가들의 다양한 생활창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문화와 장터가 혼합되는 문화예술장터이다. 프리아트마켓 개장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0월말까지 운영된다.

/송준길 기자 jksong@wooriilbo.com

「방과 후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

추진부서 | 교육지원과

강남수능인터넷방송 및 ebs 강사 초빙 수업 진행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방과 후 학력증진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반 프로그램은 고교 선택제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 우수학생의 외부유출 현상을 막고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시행된 수월성(효과성을 극대화) 교육 지원프로그램이다.

중학교 졸업성적 상위 2% 이내 학생과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3개 고등학교(태릉고, 송곡여고, 혜원여고)에서 주 3회 방과 후에 실시된다.

2010년 총 57명, 2011년에는 총132명의 학생들이 특별반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에선 학생 선발방식 및 프로그램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수업의 내용과 강사의 강의 만족도 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특별반이 사교육 대체를 넘어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으로서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2011년부터는 수업에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고의 인지도를

중랑구,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

강남수능인터넷방송 · EBS 강사 초빙

중랑구가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통한 학력신장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 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2010년에 이어 올해 3월부터 '방과후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지원 사업을 태릉고, 송곡고, 배원고 등 관내 3개 고등학교에서 지역의 7개 고등학교 학생 1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 3회 방과 후에 관역별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반 프로그램은 고교 선택제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지역 우수학생의 외부유출 현상을 막고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년에 적응 실패한 중랑구만의 고유한 수월성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금년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2학년까지 확대 운영하며, 특별반 학생의 대상은 중학교 졸업성적 상위 2% 이내 학생과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해 국, 영, 수 교과목 수업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에선 학생 선발방식 및 프로그램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수업의 내용과 강사의 강의 만족도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특별반이 사교육 대체를 넘어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으로서 충분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수업에 질을 한층 더 끌어



어울리기 위해 전국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강남 수능인터넷방송과 EBS에서 활동하는 유명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하게 돼 고액의 학원비를 내고 유명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최고수준의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준길 기자

jsong@woorilbo.com

자랑하는 강남 수능인터넷방송과 ebs에서 활동하는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고액의 학원비를 내고 유명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최고수준의 강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일선학교 담당교사를 주축으로 하는 실무 협의회를 상설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참여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교사와 학생 대표 30명을 초청한 '구청장과 대화'를 통해 담당교사와 학생 대표로부터 건의사항, 운영관련 아이디어 수렴,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발전 없이는 지역 발전도 없다

「방과후 학력증진 특별반」은 관내 성적 2%이내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구 장학사업과 연계된 우수인재 양성 지원프로그램으로, 중랑구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 인재 육성의 동력체로서 충분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특별반 사업 외에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기회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초등 「기초학력미달학생 지원프로그램」 및 「방과후 돌봄교실」에 2억6천5백만원, 중등 「중량 미래교육 아카데미」에 2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각급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사업에 총 49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봉화산으로 떠나는 여행

추진부서 | 공원녹지과

자연을 그대로 품은 아늑하고 편안한 명소

해발 160.1m 높이의 아담한 봉화산은 아차산 자락의 하나로 서울시 기념물 제15호인 아차산 봉수대터(터만 남아있던 것을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1994년 모형을 설치)가 자리 잡고 있어 역사 체험 장소로도 손색이 없으며, 해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봉화산 도당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문화적 의미와 더불어 중랑 구민들의 친근한 휴식처인 봉화산을 야생동·식물이 편안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봉화산 일부 지역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3~4년간의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시간 30여분 코스의 4.2km에 이르는 봉화산 둘레길을 조성했다.



시골길처럼 투박하고 산책로 폭이 0.5~1.5m로 걷기에 다소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소나무 숲 등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리자는 목표로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봉화산 둘레길은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특히 바위나 돌이 거의 없어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코스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목재 데크, 벤치, 전망대 등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숲 해설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 넷째주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자연생태체험교실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숲 해설가와 함께 숲의 생태와 동 · 식물 등을 관찰하고 자연놀이 등을 통해 생태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하게 된다.

봉수대공원 팔각정에서 모여 봉화산 역사와 문화 소개를 들은 후 봉수대 공원을 시작으로 공원 내 서식하고 있는 동 · 식물을 관찰하고, 관찰한 식물에 대해서는 생태전문가로부터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생존전략,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산을 올라가며 만나는 동물(새, 곤충)들의 이름과 생활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어 봉화산으로 올라가 둘레길을 중심으로 숲과 나무, 숲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 자연물을 이용한 자연놀이 등을 체험하고, 숲 해설가가 야생생태와 숲의 변천, 각종 수목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방학 기간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족단위의 참가가 많은 편으로 함께 산을 올라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야생생태에 관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어서 매회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봉화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도심 대표적인 산책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을담장 벽화 만들기

추진부서 | 도시디자인과

서울신문

2011년 12월 02일 금요일
017면 공공정책



면적7동 636~11주막 담장벽화 영화 '미미'의 캐릭터 (위). 중랑구 망우본동 487-1 시민상용 담장에 그린 벽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한 장면. (아래) 중랑구 서울

회색 도시, 色을 입다

중랑구 담장벽화사업, 미관 개선 호평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버스정류장을 지나다 보면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느낌이 든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포레스트 검프' (통 행크스 분)의 대사가 담장벽화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신발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 갔었는지요.'라는 글씨가 행인의 발길을 붙잡는다.

■ 미술 전공 강현식씨 등 친근한 영화 주제로 그려

미술을 전공한 강현식(41)·박종호(35)·김현승(32) 씨가 마을담장 벽화 만들기 일환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들은 지난 3~6월 망우본동 버스정류장(24.8m), 지하철 7호선 사거림 역(13m), 중화1동 연남우역(50m) 등 5곳의 담장에 영화 이야기를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길이는 1.7m에 이른다. "집 앞 골목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낙서를 너무 많이 해 지저분했어. 민원을 넣어 페인트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담장벽화를 그려보니 낙서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김현승(33·중화동) 씨는 호숫만 열거려 이렇게 말했다. 그곳엔 예니메이션 '차킨 런'의 주인공들이 워트 넘치게 댕다. 착각하고 차킨기만 한 회색빛 도시가 이야기 담긴 미술관으로 변신한 셈이다.

■ 공공디자인 우수상·온라인 심사 최우수상 수상

담장벽화사업은 청년창업자의 일자리(일당 9만 원)를 창출하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 박종호씨는 "평소 화실에서 작업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보통 간격으로 벽화에 매달았다. 며칠 지나면 주민들이 응원해줘 힘든 줄 몰랐다"고 웃을 뻔했다. 이어 "슈퍼맨, 아이스메이지, 트루먼쇼 등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그려주니까 쉽게 이해하고 애착을 갖는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화답했다. 비 오는 날만 빼고 달밤에 페인트 냄새, 아크릴 붓질과 씨름한 노고도 달콤한 열매를 맺었다. 국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에서 살현부문 우수상, 대국민 온라인 투표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분관권 구정장은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름다운 마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dong@seoul.co.kr

일자리도 생기고 동네도 예뻐지고~~ 일석이조의 효과!!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버스정류장을 지나다 보면 "야외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느낌이 든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포레스트 검프' (통 행크스 분)의 대사가 담장벽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젊은 예술작가들의 일자리창출과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담장 및 벽면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야기'를 콘셉트로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마을담장 벽화 만들기 사업을 벌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미술작가, 구가 협의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과 문화 예술적 측면의 공간 확장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마을로 재탄생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이런 문제도 말끔히 해결됐다.

"집 앞 골목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낙서를 너무 많이 해 지저분했어. 민원을 넣어 페

전국매일

2011년 12월 02일 금요일
009면 종합

중랑구,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우수상'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1년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 관련 수기, 공공예체 디자인, 공공제품·시설·공간 디자인 등 3개 공모분야에 지난 9월15일까지 총 106점이 응모했다. 구는 공공제품·시설·공간디자인 실현부문에 마을담장 벽화만들기 사업을 출품해, 실현부문에서 우수상을, 대국민 온라인투표 심사에서

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을담장 벽화만들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면 5개소를 선정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야기'를 컨셉으로 대상지별 특성에 맞게 마을담장 벽화를 표현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거뒀음은 물론,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시민일보

2011년 12월 02일 금요일
008면 서울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간디자인 부문'

우수상 '중랑구' 수상 쾌거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1년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영역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자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공공제품·시설·공간디자인 실현부문에 '마을

담장 벽화만들기 사업'을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을담장 벽화만들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면 5곳을 선정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야기'를 컨셉으로 대상지별 특성에 맞게 마을담장 벽화를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yj@siminibo.co.kr

인트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담장벽화를 그렸더니 낙서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칙칙하고 차갑기만 한 회색빛 도시가 이야기가 담긴 미술관으로 변신한 셈이다.

노후·퇴색된 담장 및 옹벽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벽화사업을 전개하여 삭막하고 획일적인 도시환경을 공공미술로 치유·보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으로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마을을 조성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동체 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에서 실현부문 우수상, 대국민 온라인투표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 면목7동 636-11 주택 담장 사업 전·후 : 영화 '하이스페이스'의 캐릭터



▲ 상봉1동 264-16 주택 외벽 사업 전·후 : 영화 '슈퍼맨'의 캐릭터



▲ 망우본동 487-1 서한상운 담장 사업 전·후 :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한 장면

나눔과 배움 멘토링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추진부서 | 교육지원과

나눔과 배움을 통한 희망 쌓기 프로젝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복지가 필요한 관내 학생에 대하여 구 직원이 직접 멘토가 되어 인성 및 학습지도를 해 주는 『나눔과 배움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다.

중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관내 학교에 지원해 왔으며, 장학사업 및 우수학생 특별반 운영 등 여러 가지 교육발전 사업을 시행하며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타 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맞벌이 가정도 많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 직원이 직접 1대 1로 관내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학습에 도움을 주는 『나눔과 배움 멘토링』 사업을 구상하였다.

2011. 4월 구청 및 주민센터 직원 중 멘토 지원자를 신청 받아 총 17명의 멘토를 선발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협조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관내 초·중학생 14명들

市政新聞

2011년 06월 09일 목요일
011면 자치구

중랑구 '나눔과 배움 멘토' 본격 활동

공무원 17명 '1대1 결연'
저소득층 아동 교육복지

중랑구(구청장 문병관)는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복지가 필요한 관내 학생에 대해 구청 직원이 직접 멘토가 돼 인성 및 학습지도를 해주는 '나눔과 배움 멘토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구청 및 주민센터 직원 중 멘토 지원자를 신청 받아 총 17명의 멘토를 선발했다. 또 학교장 추천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협조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관내 초·중학생 17명을 멘토로 선발했다.

선발된 멘토 봉사자는 활동에 앞서 5월20일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학습전문상담사 이직을 강사로부터 기본 수당교육 및 자원봉사 사명교육을 이수했으며 또 멘토와 멘티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서로에게 적합한 사항과 결연지도록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는 지난 1일 오후 4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나눔과 배움 멘토링 결연식'을 열고 멘토(구청 직원 17명), 멘티(초등학교 17명)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또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나눔과 배움 멘토링' 주요 활동으로는 △학습지도 및 학습동기 부여 △방과후 교육과정 보완 학습 지도 △올바른 도덕관 및 가치관 지도 △기타 멘토의 개인적 경험, 지식, 기술재능을 멘토링 프로그램에 진행하게 된다.

문병관 중랑구청장은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구청 직원이 직접 봉사하고 나눔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귀감이 될수 있도록 우리구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수멘토 시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9월부터 멘토와 멘티가 개별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연말 우수 멘토에 대한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멘토링 경험 및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생활의 여유는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구청 직원이 직접 봉사와 나눔을 통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외에 귀감이 됨은 물론 중량구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중량구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매일신문

2011년 06월 08일 수요일 007면 서울

필자명 기자
/ 중량구구청
장 윤명권은
지역의 교육발
전을 위해 교
육복지가 필요
한 관내 학생
에 대해 구청
직원이 직접
멘토가 되어
인성 및 학습
지도 등을 해
주는 '나눔과 배
움 멘토링' 사
업을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
는 지난 4월 구
청 및 주민센
터 직원 중 멘
토 지원자를 신청받아 총 17명의 멘토를 선발했으며,
학교장 추천 및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협조를 교육복
지가 필요한 관내 초·중학생 17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멘토 봉사자는 활동에 앞서 5월 20일에 자
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학습전문상담사 이자은 강사
로부터 기본 수양교육 및 자원봉사 사전교육을 이수
했으며, 또한 멘토와 멘티에 대한 성향 파악으로 서로
에게 적합한 사람과 결연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구는 지난 1일 오후4시에 '나눔과 배움 멘토링 결



『나눔과 배움 멘토링』 결연식
이달 시·2011. 6. 1. 14시 15분 / 구청 소회의실(제1회의실)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 되어
중량, 초중생-직원 연결 멘토링 시스템 시행

연식을 구청
기획상황실에
서 멘토(구청
직원 17명), 멘
티(초중 학생
17명) 34명이
함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
으며, 6월 7일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다.

'나눔과 배
움 멘토링' 주
요 활동내용으
로는 ▲학습태
도 및 학습동
기 부여 ▲방
과후 교육과정
보충학습 지도

▲올바른 도덕관 및 가치관 지도 ▲기타 멘토의 개인
적 경험, 지식, 기술제공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집행
하게 된다.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08억(서울시 자치구 3위), 2010년도 125억(서울시
자치구 3위)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내 각급학교에 지
원하는 등 장학사업 및 우수학생 특별반 운영을 비롯
한 교육발전 사업을 시행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
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불편함을 날리자! 자치법규 소관부서 및 연락처 표시 서비스

추진부서 | 기획홍보과

한줄 더 넣었을 뿐인데 이만큼 편리해졌어요!

그동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었으나, 소관부서 및 법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와 전화번호를 다시 파악(해당기관 전화 등)하여 문의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자치법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겐 조금은 짜증이 날 법도 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중랑구에선 자치법규(조례, 규칙) 조문상단(제명 아래) 우측에 소관부서명과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결과는?

전국 어디에서든 자치법규 검색 도중 궁금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빠르게 문의할 수 있어 신속·투명하고 보다 편리한 법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새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소관부서 전화번호 신규입력 및 수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편의를 증진시키고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정화조 갈고리 재질을 바꾸자!

추진부서 | 청소행정과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갈고리를 부드럽게...

정화조 청소 시 인분을 뭉게 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갈고리로 젖는 과정에서 정화조 내부 콘크리트 벽, 바닥 등에 충격을 줄 경우 방수층이 파손되거나 FRP(프라스틱 재질의 정화조)통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인분을 뭉게 하는
갈고리는 강한 내구성을
지닌 스테인리스로
만들어도 3~6개월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재질의 나무나 플라스
틱 재질로 적합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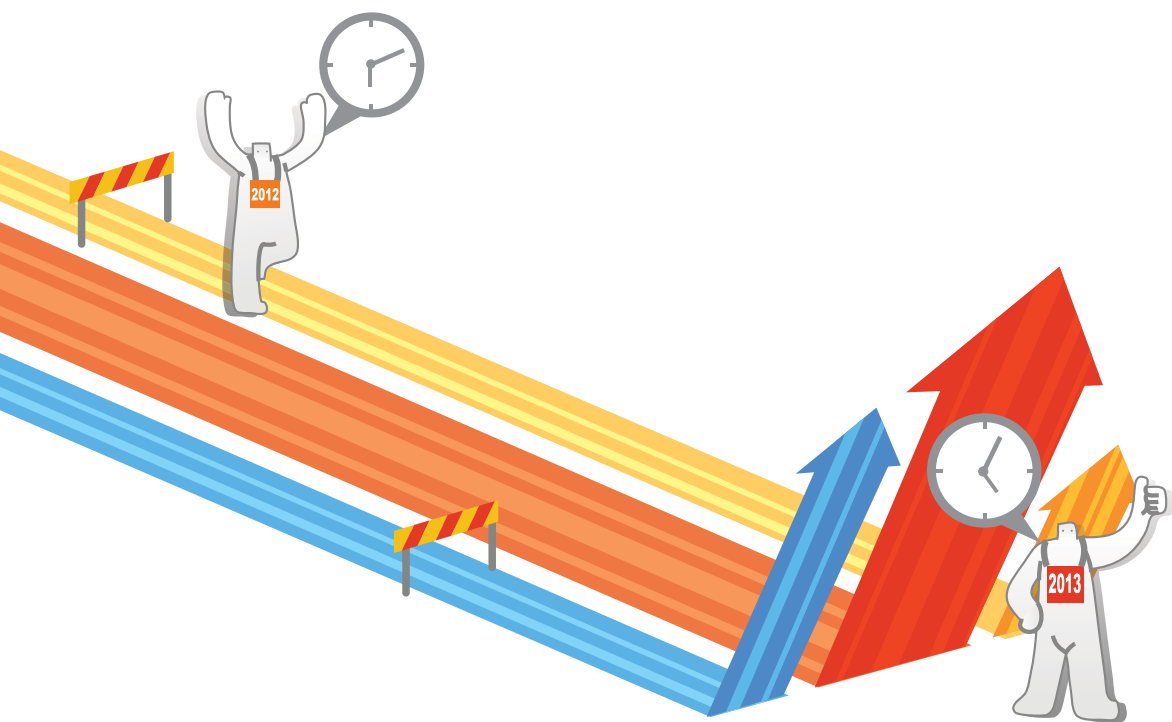
스테인리스 날 끝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을 완만하게 접고 모서리 부분은 라운드 처리한다면?

갈고리의 각진 부분을 완만하게 제작함으로써 정화조의 내부벽, 바닥등의 방수층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책임자 및 청소작업자에게 정화조 작업시 파손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을 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chapter 3

2011 상상제안



사람이 일생 동안 대인 관계를 증가시키는데는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끊을 줄 아는 능력
단체에 가입할 뿐 아니라 탈퇴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앨빈 토플러 -

지목변경된 토지의 지가산정 방법 개선

● 제안자_부동산정보과 채수삼 ● 추진부서_부동산정보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 지목변경된 토지의 취득세 부과시 산정지가(취득시점지가) 사전 검증 실시 및 지목변경(취득시점)일과 무관하게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임시지가에 의해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취득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과세의 불공정성이 발생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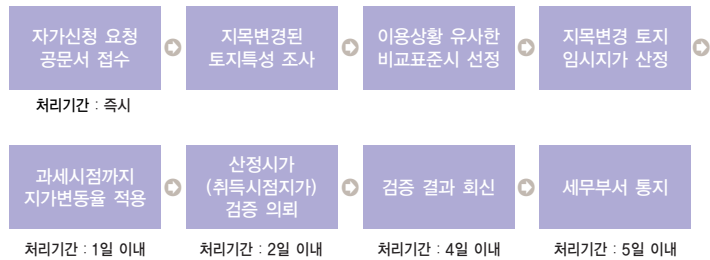
- ▶ 취득세 부과부서의 지가산정 요청시 1월 1일(7월 1일) 기준 산정지가 및 지목변경(취득시점)일까지 지가상승분을 합산한 취득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 실시
- ▶ 감정평가사 검증 완료 후 취득시점지가의 부과부서 통지
- ▶ 취득시점까지 지가상승분이 합산된 취득세의 납부 고지(부과부서)

추진 내용

- ▶ 현행제도의 문제점
 -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 없이 세무부서에 산정지가 통지
 - 현재 지목변경된 토지의 산정지가에 지가변동율(지가상승분) 미 반영
 - 1월 1일 산정된 임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시 과세 불공정 발생
- ▶ 보완사항
 -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가 지가를 산정하여 세무1과에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상승



▶ 업무개선 흐름도 및 처리기간



▶ 개선 시 세수 증대 예

• 지목변경 취득세 산출내역

⇒ 개선전 : (산정지가 - 착공 전 지가) × 토지 면적 × 2.2(세율)

➔ 개선후 : [(검증지가 + (기준일 ~ 지목변경시점까지 지가
상승분 합) - 착공 전 지가)] × 토지 면적 ×
2.2(세율)

☞ 1월 6일 지목변경된 토지(망우동 000-00, 답 ⇒ 대)

⇒ 현부과 : (1,050,000원-409,000원) × 330(m²) × 2.2(세율)
=4,653,660원

➔ 개선시 : (1,063,960원-409,000원) × 330(m²) × 2.2(세율)
=4,755,000원(+101,340원)

☞ 4월 27일 지목변경된 토지(망우동 000-00, 임야 ⇒ 대)

☞ 현부과 : $(1,280,000\text{원} - 155,000\text{원}) \times 326(\text{m}^2) \times 2.2(\text{세율})$
= 8,068,500원

➡ 개선시 : $(1,287,515\text{원} - 155,000\text{원}) \times 326(\text{m}^2) \times 2.2(\text{세율})$
= 8,122,390원(+53,890원)

기대 효과

- ▶ 감정평가사 사전 검증을 통한 산정지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 지가변동율(지가상승분) 적용으로 과세의 공정성 제고 및 세수 증대 효과
 - 2010년 기준 대비 취득세 부과 금액의 약 2% 증대
- ▶ 산정지가 산출시 담당자 주관성 배제로 공정 과세 실현

종량제수수료 감면대상자 미지급봉투 처리방안

● 제안자_면목7동 하연자 ● 추진부서_청소행정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서울시 종량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2조(수수료감면)에 의거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분기1회 직접 또는 통반장, 직원 등을 통하여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재, 사망, 전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수령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절감과 더불어 지급대상자(특히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감면대상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③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안 내용

- ▶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매분기 미지급되어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처리방안 명시(법제화)
- ▶ 지급대상자의 전출, 장기간부재, 사망 등의 사유로 매분기 발생되는 미수령된 종량제봉투를 일정기간(예, 지급일로부터 3~6개월)보관하고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미수령 대상자의 봉투를 반납처리하거나 다음 분기 지급 소요량 파악 시 미수령된 분량만큼 제외하고 신청(동주민센터) 및 제작

추진 내용

- ▶ 사망의 경우 외에 장기 부재자의 경우 직접 찾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봉투 발생량이 많지 않으나, 일부 재고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분기별 수수료 감면 대상자 파악시 서식을 변경, 재고량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 추진
- ▶ 청소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경우, 해당분기 감면대상자 지급 소요량 파악시 추가로 전 분기말 기준 동주민센터별 미수령 분량[사망, 전출, 장기부재(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조사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를 지급

기대 효과

- ▶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
- ▶ 지급대상자(특히 수급자의 거주여부 등) 관리의 효과 극대화

고시 · 공고에 따른 법제심사 및 번호등록 방법개선

● 제안자_공원녹지와 이흥규 ● 추진부서_기획홍보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 시보나 구보 등에 고시 및 공고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과에서 법제심사 통제번호를 등록하고 전결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후에 민원여권과에서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하고 있음
- ▶ 과거에는 직인을 받아 게시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문서내 직인 기능이 있어 별도의 직인을 득할 필요가 없음
- ▶ 따라서 1개 부서에서 전자결재상으로 일괄 처리(고시 · 공고 법제심사통제 및 등록번호 부여)함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음



제안 내용 ▶ 고시·공고에 따른 통제 및 번호 등재를 1개 부서에서 전자 결재시 일괄 처리

추진 내용 ▶ 고시·공고 방법 일원화

- 기획홍보과에서 중요문서 심사, 고시 및 공고 번호 부여와 필요시 구보게재까지 총괄
- 고시·공고문서의 경우 법제심사필 심사후, 고시 및 공고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2개부서(기획홍보과, 민원여권과)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직원의 불편 해소



기대 효과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 ▶ 무연고 사망자 처리시 무연고 사망자의 인적사항, 시체의 발생 상황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특별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 구 홈페이지 공고의 경우 홈페이지 관리부서(전산정보과)에 공고 협조 의뢰 후 무연고 업무부서(주민생활지원과) 담당직원이 계정(ID)을 부여받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직접 공고 게시하고 있음
-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의 경우 자치구 무연고 업무처리 부서(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 홈페이지 관리부서(정보화기획담당관)에 공고 게시 의뢰하고 있으나 실제 게시되는지 여부를 계속 홈페이지를 지켜보면서 미게재시 전화 독촉 등 행정적 시간 및 인력 등의 소모가 많으며, 게시를 못하였거나 게시기간을 어길 경우 법정업무 처리 하자로 소송 등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일간신문 위주로 공고 게시하고 있음

[illegible]

추진 내용

- ▶ 중랑구 ⇒ 서울시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요청
- ▶ 서울시 ⇒ 전 자치구 :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 사용 권한 부여

번호	과제	발급일자	등록일	종류
4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4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2-20	2019-12-20	고시

기대 효과

- ▶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대신 서울시와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시할 경우 일간신문 광고료 비용 396,0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 ▶ 중랑구의 경우 서울의료원 개원 이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월 1회 이상 공고 게시할 경우 연간 4,752,000원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 시와 구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적 시간 및 인력 소모 감소와 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노인자원봉사활동 폐지

● 제안자_신내2동 이순리 ● 추진부서_가정복지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 현재 노인봉사활동(거리청소, 공원청소, 교통정리 등등)의 경우 어르신들의 일련의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간주하고 약간의 수고비(기준:1일4시간 5천원)를 제공하고 있음
- ▶ 취지는 봉사활동이었으나 어르신 일자리와 활동내용이 중복되면서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의 급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동일유형 사업의 중복, 같은 일을 가지 수만 늘렸다는 어르신들의 비난이 있음)
- ▶ 5천원을 제공하면서 청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체크하는 등의 조치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쾌감을 줌. 비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주2회 활동내역을 반드시 동담당자가 출장 점검해야 하는 것은 사업규모에 비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봉사활동 없이 활동비만 지급되는 문제점도 발생



- ▶ 예산낭비 : 현재 봉사활동임에도 참여자들의 산재보험을 가입 하도록 되어 있어 그 비용으로 월 15만원가량이 소요되고 있음. 매년 활동운영비로 각 동별 10만원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쓰레기봉투나 장갑 등의 소모용품을 구입하는 정도로 굳이 비용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목임
- ▶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나 중복지원으로 보아 봉사활동 참여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면서 어르신들의 민원발생 (차비 정도만 받는 말 그대로 봉사활동인데, 일자리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

제안 내용

- ▶ 2012년 노인봉사활동사업 폐지, 봉사활동에 배정된 예산을 노인복지사업에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

추진 내용

- ▶ 노인봉사활동 사업 현황
 -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주 2회, 일 4시간을 뒷골목 청소, 무단투기 계도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하며 월 40,000원 ~ 45,000원 정도의 봉사활동비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 59,200천원의 예산으로 매월 평균 113명(연 1,35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음
 - 1일 4시간 봉사활동 시 5,000원을 지급하는데, 출석과 현장 점검 시 어르신께서 불쾌감을 표출하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봉사활동 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나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인한 사고 위험률이 높아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월평균 150,000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음
(산재요율 : 보수총액의 0.033%, 월평균 보수총액 4,550,000원× 0.033=150,150원)

기대 효과

- ▶ 노인봉사활동 사업 폐지
 -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사하고 행정력과 예산 지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짐
- ▶ 중복 업무의 간소화 및 민원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 ▶ 예산절감[봉사활동비지급 연간 5,000만원 가량, 봉사활동운영비 (청소용품구입명목) 160만원, 봉사활동참여자의 산재보험료 약200만원]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노인복지업무에 활용

용역성과품 관리체계 구축

● 제안자_공원녹지와 박고운 ● 추진부서_기획홍보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 현재 개별부서에서 시행한 용역의 성과품은 총괄 관리부서 없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용역 성과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제안 내용

- ▶ 대 상 :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기타 구정관련 중요 용역
- ▶ 제안내용 : 개별부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용역비가 재지출 되지 않도록 총괄부서(기획홍보과)에서 용역 통제관리, 성과품 관리, 전자복 제작
 - 용역 시행 전 타당성 검토(기획홍보과)
 - 용역의 착수 및 완수 결과보고(개별부서)
 - 용역성과품 출력물 및 저장물 제출(개별부서→기획홍보과)
 - 서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용역성과품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전산정보과)



추진 내용

- ▶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악
 - 용역성과품의 관리를 업무담당자 개별로 하고 있어, 인사 이동이나 업무변경 시 인수인계 누락으로 자료가 사장되어 활용을 제대로 못하거나 심한 경우 분실할 위험이 있음
 - 용역에 대한 부서별 공유가 되지 않아 비슷한 용역이 중복 시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 체계적인 용역관리시스템 구축
 - 해당부서 ⇒ 용역의 타당성 검토
 - 기획홍보과 ⇒ 용역의 중복성 여부 확인 및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예산, 홍보, 법제)
 - 용역의 착수 및 결과보고, 용역성과물 출력물 및 저장물 제출, 용역성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대 효과

- ▶ 중요 용역성과품이 분실되는 위험 감소
- ▶ 주요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원활한 협의에도 도움
- ▶ 기존 용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슷한 용역이 재시행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낭비 방지
- ▶ 용역성과품을 개별부서 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품 활용도를 높임

거주자 주차 공간 확보

● 제안자_상봉1동 강태구 ● 추진부서_교통지도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 상봉초교 주변은 대부분 노후된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통 소통 및 보행, 어린이보호 등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경우도 빈번함

제안 내용

- ▶ 현재 정비 중인 신상봉역 옆길(동일로 120길)은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니, 3차선 중 1차선은 거주자 주차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추진 내용

- ▶ 상봉1동 333-37~상봉1동 190-67 구간은 경춘선 전철공사와 병행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구간으로 2010.3.15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6월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도로개설 구간 내 편입건물 1동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공사 기간이 연장된 상황임
- ▶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초래되어 2011. 6.10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설이 완료된 구간에 한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도색을 촉구
- ▶ 도로포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도색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완료(2011. 7월)



기대 효과

- ▶ 주차 공간 확보로 민원 발생 감소 및 주민 불편 해소

새주소 안내에 관내 부동산업소를 이용한 [친절도우미제도]를 도입하자

● 제안자(구민)_중화동 정병기 ● 추진부서_부동산정보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새주소 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들의 관심이 적고, 새주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새주소 찾기에 혼란이 예상됨

제안 내용

- ▶ 부동산중개업소만큼 관내 지리나 건물 위치를 잘 아는 곳이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새주소를 찾아주는 친절 도우미”로 활용하여 새주소 조기정착에 기여



- 추진 내용**
- ▶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한 부동산 중개업소 협조 요청
 - ▶ 부동산 중개업자의 참여 확정 ⇒ 도로명주소 안내 도우미 역할
 - ▶ 구에서 표찰 및 안내지도, 책자 제작·배부 지원



- 기대 효과**
- ▶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와 전산 DB 구축,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을 완료
 - ▶ 시행 초기 주민들의 골목길 길 찾기 불편 해소

중랑구 SNS(소셜미디어) 구축 및 활용

● 제안자(구민)_목록 배재형 ● 추진부서_전산정보과

제안 취지 및 배경

- ▶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구민과의 소통창구도 변화될 필요가 있음.
-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안 내용

- ▶ 앞서가는 중랑구도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SNS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여 스마트하고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추진 내용

- ▶ 공식 트위터(http://twitter.com/JungNang_Gu)를 개설 :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
- ▶ 구정소식과 재난정보 등 다양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 ▶ 구민정보화교육에 트위터 강의를 개설하여 소수의 젊은층뿐만 아니라 주부, 어르신까지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홍보에 소외 계층이 없도록 노력



아시아경제

중랑구, 트위터로 구민과 소통 보인다
복합수집 2011.04.28 09:07 기사입력 2011.04.28 09:07

[아시아경제 박종필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관)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식 트위터(http://twitter.com/JungNang_Gu)를 개설, 활용하고 있다.

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구정소식, 언론보도자료, 문화행사, 사업안내, 재난정보 등 다양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된다.

또 구민이 소리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적 참여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랑구청 공식 트위터에 참여(Follow)를 하면 누구나 트위터에 접속, 검색창에 '중랑구청' 또는 트윗창에 '@JungNang_Gu'를 직접 입력하여 트윗하면 바로 연결된다.

향후 중랑구청 트위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트렌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호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dream@

전국매일

2011년 04월 29일 금요일
미려한 행정

중랑구, 공식 트위터 개설 구정소식·각종행사 등 안내

중랑구(구청장 문병관)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식 트위터(http://twitter.com/JungNang_Gu)를 개설,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구정소식, 언론보도자료, 문화행사, 사업안내, 재난정보 등 다양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구민이 소리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적 참여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랑구청 공식 트위터에 참여(Follow)를 하면 누구나 트위터에 접속, 검색창에 '중랑구청' 또는 트윗창에 '@JungNang_Gu'를 직접 입력하여 트윗하면 바로 연결된다.

향후 중랑구청 트위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트렌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호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dream@naver.com>

- 기대 효과** ▶ 구정홍보 등 구민참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보다 친밀감 있는 구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chapter 4

학습동아리 이야기



나무가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는 어떤 행복도 만들지 못한다.

천천히 삶을 즐겨라
너무 빨리 달리면 경치만 놓치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놓치게 된다

학습동아리 소개

연번	동아리명	인원	대 표 자	연 구 과 제	비 고
1	느낌표 !	3	회장 : 박정란 총무 : 홍영희	다가가기 쉬운 창의를 만들어 보자	기획홍보과
2	주자학 (主自學)	37	회장 : 최동근 총무 : 우진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발전방향 (자치회관 운영 표준모델 개발)	자치행정과
3	우리는 한가족	7	회장 : 김갑중 총무 : 노완정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정복하자	민원여권과
4	이(齒)사랑	6	회장 : 임군호 총무 : 이혜림	건강한 치아 만들기를 위한 방안 모색	의 약 과
5	목1 상상공작소	15	회장 : 최영학 총무 : 조상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동 특화사업 개발	목1동
6	사고(思考)등치 세우리(稅友里)	6	회장 : 전중환 총무 : 박현선	효율적인 세무행정 연구 및 청렴도 제고 방안	세무2과
7	뉴 타 운	7	회장 : 신명승 총무 : 김성태	중랑구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관리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과
8	거꾸로 토론회	8	회장 : 조창영 총무 : 신세화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친절환경 조성	면목3·8동
9	창공(창의공간)	7	회장 : 박건석 총무 : 강수영	구 발전 및 민원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토의 모임	교통행정과
10	공공살피미	13	회장 : 방종태 총무 : 이호재	입간판, 현수막, 전자문서 등의 잘못된 표현을 찾아 발표 및 토론	상봉2동
11	여행시대!	9	회장 : 김연태 총무 : 김무경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	주택과
12	IT's	10	회장 : 이봉수 총무 : 정원자	정보화 역량 강화	전산정보과
13	중랑프로미	4	회장 : 소은정 총무 : 박지숙	중랑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표준안 서식 연구	자율모임
14	중랑뮤직파크	12	회장 : 홍두인 총무 : 김혜원	다양한 장르의 음악 편성 연중특별방송(친절, 청렴) 운영	자율모임



상쾌한 아침을 여는 ‘중랑 뮤직파크’

회장_총무과 홍두인 총무_총무과 김혜원

76

2011 중랑 상상대로



●●● 언제부터인가 출근 시간이 기분 좋게 다가온다.

중랑구청 직원들이 직접 대본제작, 기술, DJ 역할까지 담당하며 운영하는 사내방송 ‘중랑 뮤직파크’ 때문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25분부터 30분 간 진행되는 ‘중랑 뮤직파크’는 팝·7080가요·최신곡·클래식 등 매일 다른 장르의 음악을 선곡해 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떠오르는

요일	주제(Theme)	주요내용	비고/특집
월	Oldies but Goodies	•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300선 • 추억의 올드 팝송 등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화	Brand New(최신곡)	• Trend에 맞는 최신곡 방송 • 최신가요 및 팝송, 연주곡 등	정책소개코너 "중량은 지금"
수	지금 이순간? 지금 이노래!! (직원신청곡)	• 신청사연 소개 및 각종 경조사 소개 등 • 중량음악방송 게시판 신청곡 방송	"칭찬은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합니다!!"
목	불후의 명곡 (아티스트 특집)	•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100인 특집 • 아티스트 별 불후의 명곡 소개 등	
금	Never Ending Story (지정테마)	• 음악장르, 영화음악, 뮤지션(작곡가), 계절 등 각종 테마를 통한 특집방송	

신간, 영화, 아티스트 등을 소개하는 요일별 코너를 편성해 방송 운영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기본가치이지만,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을 재미있는 사례와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기획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직원들에게 청렴을 이해하고 실천의지를

북돋아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정책소개코너인 ‘중량은 지금’에서는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타부서의 업무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음 따뜻해지는 ‘친절서비스 사연과 중량구를 빛나게 한 친절공무원’을 소개함으로써 직원 사기 앙양 및 친절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소통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중량구 직원이라면 누구나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고 동료의 생일, 결혼 등 서로에 대한 축하 사연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1일 DJ(작가)가 돼 방송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나도 1일 DJ(작가)’ 코너도 인기다. 그리고 2011. 9월에는 ‘중량 뮤직파크’ 개국 1주년을 맞아 특집방송으로 1일 DJ코너, 직원들의 신청곡으로 구성된 내 인생



최고의 노래(불후의 명곡), 직원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모든 것이 중랑뮤직파크 동아리 회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지속적인 방송 모니터링과 인터넷카페 ‘중랑 뮤직파크’를 개설하고 방송에 대한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좋은 방송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 결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더욱 더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중랑 뮤직파크’는 단순한 사내음악방송을 벗어나 아침을 열어주는 진정한 소통과 만남의 매개체로 계속 직원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뉴타운

회장_도시개발과 신명승 총무_도시개발과 김성태

- ● ● 중랑구 재정비촉진사업전반에 관한 연구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운영전반에 관해 연구하는 모임이다.

2011년 학습동아리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우수 동아리로 중랑구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열성적인 관심과 민원 감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모범 동아리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제도 검토 및 사업촉진 방안,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방안 검토 및 공공관리자제도, 중화 및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도입 방안 검토,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활성화 방안,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상 개선방안 등 딱딱하다고 느끼기 쉬운 도시개발 전반에



대해 토론·연구하고 개선안을 발굴하는 등 중량의 밝은 미래를 위한 ‘뉴타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 서울의 역사적 변화와 위상 변화,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숙지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월별로 다양한 주제를 정해 현재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거나 서울시와 구의 재정비 관련 주요 진행(예정)사업이나 법규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연구한다.

월별	연구테마 및 활동내용
4월	도시계획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 서울의 역사적 변화와 위상 변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5월	현 서울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 및 각 구역별 사례 분석
6월	- 서울시 제1차 정비분과협의회 개최 결과 토지등소유자 동의 철회 여부 관련 토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절차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8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대책
9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예정 내용,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자 자격,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변경 부분 - 조합설립인가의 처리 절차, 처리시 검토 사항 및 주의사항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주요 내용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검토
10월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절차 및 세부내용 검토 - 정비사업의 마무리 절차인 철거,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청산 등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 설명과 상호 토론
11월	- 재정비 촉진지구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행위 등의 제한 -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한 설명 및 토론
12월	쓰레기자동집하시스템에 대한 개요, 장단점 및 최근 동향, 적용사례 설명 및 토론



중랑 이(齒)사랑

회장_총무과 임군호 총무_의약과 이혜림

82

2011 중랑 상생대로

●●● 올바른 잇솔법의 관학협력사업 전개로 주민의 건치를 지키다

자칫 소홀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이(齒)...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는 치료비와 고통까지 따르니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어릴 적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인다면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중랑
‘이(齒)사랑 동아리’는 매년
활발한 연구와 활동으로 이제는
중랑구의 대표적인 학습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에는 대학에 있는 치위생
과와 연계하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인형극 순회공연으로
올바른 치아관리의 확산을 유도하고, 대주민 캠페인 전개로 칫솔 바꾸는 주기 및
올바른 잇솔질 방법 등 관리법에 대해 홍보하고, 관내 취약시설을 방문하여 올바른
치아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대학 치위생과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대학 연극동아리를
섭외, 미팅을 거쳐 구강보건 인형극 공연을 준비했다.
직접 대본을 쓰고 인형극 의상까지 제작·준비하는 등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내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구강보건 관련 ‘뽀로로 인형극’을 공연하여 자라는 아이들에게 치아우식 예방법을 주입식 강의가 아닌 흥미진진한 연극으로 친근하게 보여주어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주민 홍보 일환으로 서울시 치위생사협회의 협조를 구하여 중랑 구민 건강 한마당 행사 시 ‘치아사랑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불소도포 홍보 및 실시, 주민들에게 칫솔 바꾸는 날과 올바른 잇솔질 방법 등을 교육하며 구강관련 예방 및 관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2012년에는 ‘이(齒)사랑 동아리’가 또 어떤 아이디어로 다가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주인된 마음으로 스스로 배우자 주자학(主自學)

회장_자치행정과 최동근 총무_자치행정과 우진분

85

학습동아리 이야기

●●● 주민자치분야 민·관 합동 동아리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및 동 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주자학은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치회관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참 자치의 중심점이 되기 위한 노력과 주민 자치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

월별로 동을 순회하며 자치회관 운영의 추진방향 및 현안업무를 논의하고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워크숍 실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현장평가 참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나 새로운 사업계획 발표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며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공부하는 학습동아리이다. 특히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마을 비즈니스 사업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수공예작가 발굴 양성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개설, 프리아트마켓 운영 등 새로운 사업 개발에 주력했다. 또한 나눔으로 행복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1% 중량사랑나눔 운영, 찾아가는 자치공연단, 자치회관 재정적립금 계좌 신설, 수강료 및 재정적립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현금카드 발급 및 인터넷 뱅킹 실시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보다 나은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대민봉사와 자금심 고취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신분증 제작,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자치에 대해 홍보하는 권역별 통합 자치신문 제작 등은 모두 주자학 회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한 결과 탄생한 사업들이다.

1동 1수공예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마을 비즈니스 및 프리아트마켓에 적극 협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개발에 앞장서는 자치회관으로의 변신을 시도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프리아트마켓 활성화를 위한 프리아트마켓의 기획 및 연출, 컨셉의 다양화 및 풍물 등 공연형 마켓 지원, 서예 시연, 리본 만들기 등 체험형 마켓 지원, 수지침 봉사 및 알뜰장터 운영 등 나눔형 마켓 지원 등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방학 특색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운영하여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자학의 활동 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공무원과 자치위원간의 끊임없는 소통의 장인 ‘주자학’의 활동은 지속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 중랑구, 싹새타기 치즈만들기 등 신나는 프로그램 운영

최종수정 2011.12.16 10:45 기사입력 2011.12.16 10:46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16개 동 자치회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화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학습으로 구성하여 일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눈썰미 타기 치즈 만들기 요리 만들기 체험 아프리카 박물관 관람 등

1권역(면목3동·면목4동·면목7동·당우3동)은 내년 1월3일 경기도 가평 소재의 신새를 체험마을로 부모님과 같이 체험을 떠난다. 이 곳에서 농대 체험과 물고기잡이 등 다양한 놀이와 직접 정작물을 따워 고구마와 쌀을 구워먹는 추억살기 시간을 갖는다.
2권역(영등포동·당우2동·면목8동·상봉1동)은 내년 1월13일 초등생 45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으로 원생기즈마을과 향촌사 박물관을 방문한다. 양생기즈마을에서는 치즈를 이용한 착색 피자만들기 보에 오주에는 근교구마 만들기 트랙터 타기 눈썰미 등 다양한 체험놀이와 농마지 우유주거역마지기 체험을 전후 초등 '소나기'로 유명한 소리가 향촌사 박물관을 관람한다.



3권역(당우1동·당우2동·목1동·목2동)은 내년 1월17일 초등학생 70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에서 겨울방학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눈썰미와 아프리카 박물관을 관람한다. 아프리카 박물관은 11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아프리카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실에서는 아프리카 30개국 70여 개 부족들의 고라과 가면, 생활용품, 악기를 만날 수 있다.

4권역(상봉1동·당우본동·신내1동·신내2동)은 내년 1월21일 초등학생 80명과 함께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영덕마을 수유정원을 방문. 레스토랑 체험기 소양지 등 다양한 상향을 직접 체험해 보며 장어를 보다 민족학교를 설계 다가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보드게임 합계모양 그리기 역사체험전 관람 캐리크 만들기 도자기 체험교실 라틴댄스 교실

면목본동 자치회관은 내년 1월4일과 11일 각 반별 초등고생 30명을 대상으로 최근 유행의 보물창 스타트론의 사물놀이와 율동법에 대해 체험보는 시간을 가진다.

1월4일은 안드로미드 운영체계·결리시계기 컴퓨터스 등재 권역 배우고 11일은 아이리판으로 나누어 교육용 실시한다.

또 1월 중에 초등학생 1~3학년 16명과 함께 아이들의 두뇌개발에 효과적인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운영. 아이들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공살피미

회장_상봉2동 방종태 총무_상봉2동 이호재

88

●●● 옥에 티를 찾아라~~

공문서 표기 오류를 적출하여 올바른 표현방법을 제시하고, 동일한 표기오류를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동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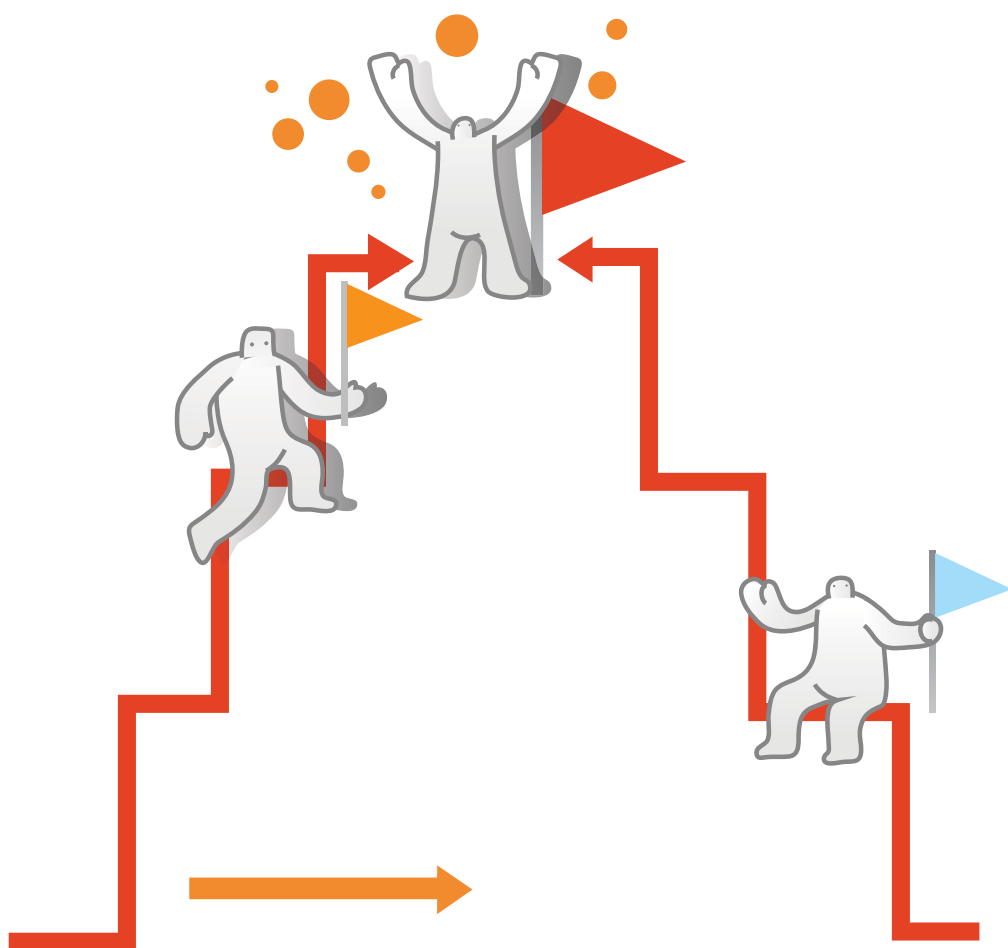
공문서 작성은 신중하게~ 표현은 정확하게~

누구나 한번쯤 저지르기 쉬운 아주 간단한 실수, 하지만 예리한 공공살피미 회원들의 눈을 피해갈 순 없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채길 수 있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표현물의 오류를 방지하고, 의미전달의 정확을 기하여, 시설물의 개선점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할 뿐아니라 내부분서를 포함한 모든 표현물에 대한 오류 살피미 활동 전개로 관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chapter 5

책속에 답이있다! 우수독후감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버리지 않고서는
나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책속에 파묻혀 죽는 것이 행복하다.

- 키케로 -

99도의 청년들이여, 당신은 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무2과 이태리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한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서류철을 꺼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본다. 커피 한잔을 후후 입김으로 식혀가며 마시고 있을 때 즈음, 첫 전화가 걸려온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

첫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울분에 찬 한 아주머니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뭐,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게 이딴 식이야? 담당자 바꿔!”

“네, 선생님,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설명을..”

“니들은 편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따박 따박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으니, 사는 게 편해 보이제!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35만원? 니들이 이렇게 고지서만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응??”

하루에도 몇 통 씩 걸려오는 항의전화들이다. 우리나라가 조세 저항이 심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절해야 한다’ 라고 교육받았다. 시민 고객의 불편에, 시민고객의 항의에 일단 공감하고, 또 공감하며,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말이다. 말 그대로 그들은 우리의 ‘고객’ 이기 때문이다. 1년에 몇 차례씩 전화 친절도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며 친절도 지수가 낮은 부서나 직원에게는 별도의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친절 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어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절 교육을 통해 우리는 친절의 의미나 친절함을 위한 스킬, 가령 목소리 톤, 말투나 인사 멘트와 같은 기술을 배우곤 한다. 이러한 여러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친절한 공무원이 되고 있는가? 시민고객들은 구청을 방문하고, 또 전화를 하면서 더 이상 불친절로 인한 불쾌함을 느끼진 않고 있는가? 도대체 친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 ‘시골의사 박경철’의 명성을 들은 것은 오래 전 일이다. 그는 이미 ‘의사 출신 경제평론가’라는 이색적인 커리어를 가진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경제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각종 경제 서적을 펴내기도 했으며 한해 300회가 넘는 강연을 하고 있다는 유명인이었다. 그는 나에게 그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능력 있는 지식인, 그러나 다른 유명인과는 조금 다르게 과시욕이 넘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의사로서의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청년들을 만나서 그의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진 말이다.

———— 그가 어느 시골의 작은 학교에 방문하였을 때였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보장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의사라는 직업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두려움은 없었나요?’ 나도 만약 그를 만난다면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일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것이다.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은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그는 첫 운을 이렇게 댔다.

“개런티라는 것은 가전제품을 판매한 회사가 몇 년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 줄 때나 쓰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되는데, ‘현재 이걸 충분해’ ‘이만하면 됐어’라는 보증과 안정이라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전제는 일단 틀린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에게 어쩌면 의사란 직업은 -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생각과는 달리 -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아니라, 그저 한 번 거쳐 간 관문으로 생각되어 졌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가 청년들에게 그토록 진심을 담아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책 ‘시골 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의 첫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다.

흔히 자기계발서는 보통 ‘당신의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는 식의 해라체 어조로 가득 차 있다. 늘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보면 자기계발서가 스테디셀러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특히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비법을 전수받으며, 나 역시 이 사회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될 수 있다. 청년들의 삶의 방향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에 늘 갈팡질팡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나면 '나도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 보다는, 내가 정말 잘 못 살아온 것인지, 나는 정말 무능한 것인지, 무엇부터 바뀌 나가야 하는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내가 꿈꾸는 성공이 일치하기는 하는 건지... 이렇게 고민은 깊어지고 자괴감만 커졌기 때문이다.

'자기혁명' 역시 그런 이유로 몰입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향은 젊은 날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몰입하고 집중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가치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된다. 여기까지는 여느 자기 계발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였다.

물론 저자는 지금까지 행보를 통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가

쓴 이런 글들이 말로만 하는 인생 지침서가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나에게게는 기존의 자기 계발서에 대한 이미지, 그 이상은 없어보였다. 그만 읽을까 잠시 고민 했었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읽어 보기로 했다.

다행이 2장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의 접근을 시도한다. 개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이전에 사회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청년들의 고민이 청년들 개개인이 가지는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청년들의 실업이 취업에 대해 각자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고, 청년들의 방향은 보편적으로 그 시기에 흔하게 겪는 열병과 같은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 땅의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 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대라는 비난만 늘어놓지도 않는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늘 그렇듯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살아가기조차 매우 힘들다.

⋮

이 사회는 서서히 변화할 것이며,
변화는 지금 이 땅의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 이전에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바로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의 불능 때문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한다. 이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산업자본이 독세함에 따라 소위 '상대적 결핍'의 시대가 열렸다. 상대적 결핍이란 대중들로 하여금 이미 갖고 있지만 더 갖고 싶게 만드는 욕망을 자극하는 상태를 일컬으며, 이는 곧 '폐기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시대'의 도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청년들은 더욱 더 극단의 경쟁 속으로 내몰리기 마련이다. 오로지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에서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노동보다 기계의 노동을 선호하고, 인간의 노동 역시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며, 1등이 아니면 무조건 가치 없다고 치부하며 환경의 문제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 역시 청년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역할만 부여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모든 척척 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글귀를 처음 읽고 나서

무언가 머리에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고 힘들었던 과정을 무사히 잘 겪어내고 나면, 설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안위하곤 했었다. 난 최선을 다했다며, 더 이상 잘 할 수는 없다고 말이다. 저자 또한 조정래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감동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쯤이면 열심히 한 거야,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자신을 가둔 채, 그 한계 속에서 아등바등 대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자기 자신의 주인인가.’

내가 만든 한계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감동시킬 수 있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습을 위해서는 다독보다는 정독을 통해 저자의 생각을 만나는 습관을 가지고, 금기를 세움으로써 밀도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배움을 통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체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글쓰기와 말하기 방법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여전히 머릿속에 맴돈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늘 그렇듯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살아가기조차 매우 힘들다. 예전보다 대졸자가 증가한 반면 일자리는 턱없이 줄어들었고, 한번 입사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으며 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 할 판이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너무 많은 부담과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박경철의 대답은 다름 아닌 '미안하다'라는 사과였다. 그는 청춘 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을 만날 때면, 늘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게 된 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나는 그의 진정성 담긴 사과는 이 책을 읽고, 그의 강연을 들었던 청년들에게는 적잖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 장인 '미래를

여는 변화와 도전'에서는 이러한 그의 진정성 담긴 사과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청년들에게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과 사회에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f the world가 아닌 for the world도 아닌, in the world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in the world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감시자의 역할을 통해 공분(公憤)하는 시민의식을 가져라. 사람이 부가 가치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수평적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방식에 주목하라. sympathy(동정심)가 아닌 empathy(공감력)를 통해 공존하고 공생하라.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은 공공적 가치에 공감한다면 이 사회는 서서히 변화할 것이며, 변화는 지금 이 땅의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제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오자. 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사회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 앞서 언급했던 친절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자. 친절에 대한 우리 모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요된 친절, 목적을 위한 친절이 아닌 진심으로 empathy가 바탕이 된 친절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친절은 서비스를 받는 이로 하여금 태도의 진정성이 느껴질리 없다. 그래서 늘 공무원은 불친절하고, 시민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니, 탁상공론만 한다는 오명을 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empathy가 바탕이 된 친절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시민고객들과의 공감대를 높여야 한다. 사실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필요에 의해서다. 그러한 시민고객의 요구나 필요가 없다면 이와 같은 행정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시민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들 또한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지고 있다. 공무원은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어느 하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귀담아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 또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의례적으로 친절교육을 받는 것 대신 인문적 사유를 넓힘으로써 시민 고객들과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시민고객들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세 의무와 조세의 사용에 대하여 시민고객들에게 열린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다. 조세의 의무에 대해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세가 어떻게 사용

되고 있는지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조세저항은 차츰 줄어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수행에 대한 기본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시민고객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조세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공무원들 간에 진정한 친절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도 필요하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끼리 모여 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간담회 형식도 좋은 방식이다.

책을 통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사람으로써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명의 공무원으로써의 역할도 되새겨 보게 되었다. 청년의 시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쌓아가는 이 시간들이 차곡차곡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변하게 될 것이다. 성급해 할 필요도, 조바심 낼 필요도 없다. 결국 물은 100도가 되면 끓어오를 것이다.

이 땅에 모든 청년들, 그리고 나는 아직, 99도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망우본동 이경혜

글을 잘 쓰진 않지만 빨리 쓰는 편이다. 심사숙고해서 한 문장씩 쓰는 사람은 독후감 같은 것을 쓰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겁이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되는 대로 써나가는 편이어서 첫 문장 쓰는 것부터 술술 써내려 가는 편이다. 하지만 글을 쓰다보면 금방 질리고 지쳐서 갈수록 문장이 허술해지고 결국 결론은 호지부지 마무리 되는 것이 나의 큰 단점임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책 욕심이 났던 것도 있고 이번엔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승전결 먼저 즐거움을 잡고 가지를 치며 글을 다 쓰고 퇴고도 하면서 완성도 높은 독후감을 써 보리라 결심을 하며 꽃피는 봄이 오는 그때 설레는 맘으로 신청했던 책은 바로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낙엽도 이미 다 떨어지고 한파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 시간에 쫓겨 육아에 쫓겨 마감시일에 쫓겨 책의 뒷부분을 허겁지겁 읽고 즐기 없이 처음부터

또 쓰고 있다. 마음과 인생을 다스리는 인문서적에 대한 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베스트셀러에서 빠지지 않는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 2010년 스티브잡스의 영향으로 인문고전학이 열풍이라고 한다. 부끄럽지만 나는 이 책이 인기가 있는지도 인문고전학의 광풍이 불고 있는지도 몰랐다. 현실에 매몰되어 공무원 사회에 매몰되어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에 온통 시선이 붙잡혀 외부 세계와는 다른 나의 쳇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었다.

대학 때 전공이 사회학이었던 나는 자의는 거의 없이 대부분 타의에 의해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었던 한때를 보냈고 리포트의 압박에 의해 목차를 더욱 중요시 하는 글 읽기를 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참 유용한 책을 읽고 있구나, 현실사회의 지침이 되는

인문고전을 읽음으로써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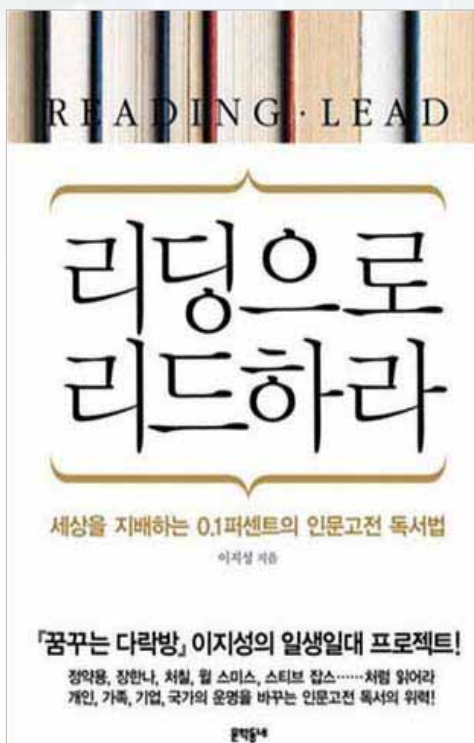
책이구나 느낀 적은 결단코 없었다. 책 읽기는 참으로 어렵고 진도는 안 나가고 게다가 뻔한 소리 그걸 누가 모르나 라는 시니컬한 태도만 키웠다.

이 책을 읽으며 역시 나의 뼈딴함은 계속 비집고 나와 물입을 방해했다. 처음에는 역사의 유명한 천재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며 그들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영재는 아니었으며 그들의 가능성을 몰라줬지만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읽은 인문학 덕분에 천재가 되었다는 일화는 나도 한번 우리 아들을 천재로 키워볼까 하는 허튼 기대를 마구마구 부채질을 하였다. 그러나 인문 고전은 스무살이 넘은 나이의 대학생이 읽기도 상당히 어렵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이 동화책 볼 나이에 인문 고전을 자발적으로 읽을리도 만무하고 그럼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함께 독서지도를 하며 책을 읽혀야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길로 보인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을 차치하고라도 이 세상의 수많은 자극에 대해 즉자적인 반응을 일삼는 나를 위해 인문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느껴지며 또 느껴진다.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의 무력적인 힘에 심사숙고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단 몇 페이지만 읽고도 이 책의 주제와 줄거리를 다 알게 된다. 바로 “인문고전을 읽어라”이다. 인문고전을 읽고 역사에 길이 남은,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한 이들을 줄줄이 나열한다.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스튜어트 밀, 후쿠자와 유키치, 조조, 세종대왕, 정조, 정약용,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는 위대한 인물들은 인문고전 독서광들이었다고 한다.

역사에 남은 위대한 천재들이 시대정신을 앞서나가 당대에는



대접도 못받다가 역사가 인정해준 그런 피땀으로 써내려간 인문고전은, 우리가 읽어줄 때만을 기다리며 지금 서점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더욱이 서점에 진열된 그들은 명망이 높으면 높을수록 쌓여온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 가격은 더욱더 낮아서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에 반해 독자인 우리는, 어렵다, 지루하다, 한국어로 번역됐지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며, 인문고전을 여전히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본다.

이 책의 구성은 단순하다. 천재가 쓴 인문고전을 읽고, 그 자신도 둔재에서 천재로 거듭난 위인들과 갑부들의 이야기를, 인문고전과 관련된 천재들의 명언을 곁들여, 매 챕터마다 실타래에서 실 풀리듯 풀어내고 있다. 인문고전을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는 형태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인문고전을 읽는다고 인생역전에 단박에 성공하고, 강통인 머리가 천재의 뇌로 변할까? 이 질문에 저자는 ‘그렇다’고 답한다. 다만 치열하게 읽고 치열하게 필사하고 치열하게 사색했을 경우에만 위와 같이 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100번 읽고 100번 필사를 하더라도 사색하지 않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천재소리는 커녕 인생역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단서의 의미를 안 순간, 그럼 그렇지 웬지 속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럼에도 인문고전이, 정체된 삶을 사는 내게 하나의 해결방안임에는 변함이 없다.

제대로 책 한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지식이 습자지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인문고전을 단 1권만이라도 제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저자와 대면한다면 부자는 못되도 적어도 훌륭한 엄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동시대의 사회지도층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와 다른 독서를 해왔으며 여전히 인문고전을 읽고 있다.

하물며 그들의 자녀들까지 보통의 아이와 다르게 인문고전 강의를 들으며 사회지도층이 되기 위한 예비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내가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동화책을 읽듯이 내 무릎에 앉혀서 인문고전을 읽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논리정연한 사회 정의를 마음속에 세워주고 싶다.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말은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난 천재가 되길 원하지도 않고, 인문고전의 저자와
동일한 수준이 될 사고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안다.

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문고전을
읽음으로써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다면,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시건방졌던 청춘을 반성하며, 이상적이고 용감
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살고 싶다.

“인문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천
재의 두뇌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법칙을 읽고

민원여권과 이재춘

작년에 비해 책을 그다지 읽지 않았다. 물론 한 해에 읽는 책이 많은 편도 아니지만 더 게을러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 본다.

스스로 반문해 본들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다.

시간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결국 게을러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단 읽고 보자라는 생각에 무작정 추천도서 목록을 뽑아 관심을 끌만한 책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다. 대략 몇 권의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책의 제목을 적어 도서관에 갔을 때 남아 있던 것은 깨진 유리창 법칙 한 권뿐이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책은 제목에 관심이 가서 고른 책이기도 했지만 책의 두께가 얇아 부담 없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할 경우,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은 범죄학에 도입되었던 이론을 비즈니스 세계에 접목한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깨진 유리창이란 무엇인가?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매장 벽의 벗겨진 페인트칠 등 고객이 느끼는 모든 불편을 일컫는다. 고객이 느끼는

이러한 깨진 유리창(불쾌감, 불편함)들이 결국 기업을 쓰러뜨린다는 법칙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몰락한 기업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려준다.

1994년 당시 미국의 K마트는 매장만 2,323개에 달하는 업계 선두였지만 창립 40주년 만에 법정관리 상황에 놓인다.

기업의 광고와 매장 수리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였지만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교육과 저렴한 상품의 제공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객서비스 부재와 방만한 경영이 깨진 유리창으로 나타나 고객들은 등을 돌렸고, 결국 K마트의 몰락을 가져왔다.

누구나 한 번쯤 마셨을 법한 코카콜라 역시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린 대기업 중 하나이다. 기존의 올드 팬들을 무시한

뉴 코크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이미지 교체 과정에서 고객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은 업계 2위였던 펩시였으며 당시 혹평가 들은 가장 똑똑한 기업의 가장 멍청한 실수라고 비난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 역시 과거의 명성을 찾아 보기 힘들다. 웰빙 열풍으로 인해 패스트 푸드가 외면이 되기도 했지만 결정적 요인은 8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최하위의 느린 서비스가 치명적인 깨진 유리창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에서도 깨진 유리창을 찾기란 쉽다.

예전에 청소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다. 그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용인 즉 쓰레기를 업체가 수거해 가는 날 배출하였는데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것 이였다.

업체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수거를 해 간다. 계속해서 수거해 가지 않았으므로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문제의 쓰레기 배출 이후 여러 날이 지난 뒤였을 터였다. 하물며 신고자도 해당 빌라의 거주 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 이었다. 악취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이었다.

오죽 했으면 해당 빌라 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이 신고를 다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문제의 쓰레기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 버린 사람이 실수한 부분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하나 둘 늘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잘못 배출된 쓰레기봉투 하나로 그 일대는 껌작부터 부서진 장롱까지 무단 투기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있었다. 결국 주민의 요청으로 그곳은 붉은 글씨로 새겨진 무단투기금지 안내문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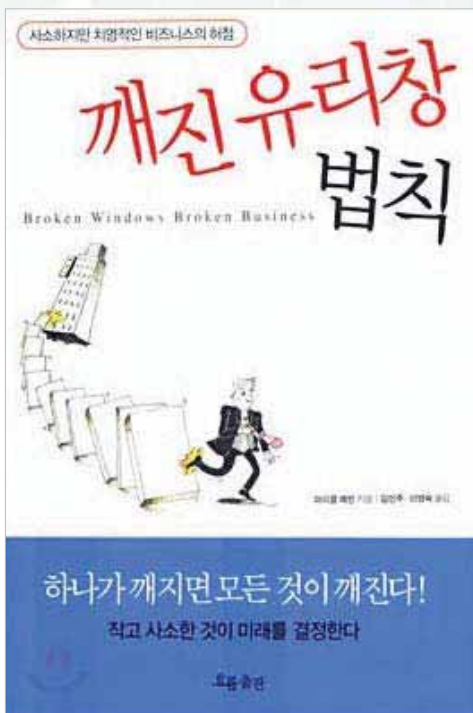
————— 인근 도로에 근접해 있어 비교적 깨끗했던 그 골목이 그 작은 쓰레기봉투 하나로 인해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된 것이다.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ARS로 전화를 하곤 한다.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기 위해 우리는 3~5분의 ARS 기계음을 들으며 참아야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격어 봤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옳은 것이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것은 최악의 깨진 유리창일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을 때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 물론 담당자 역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객응대를 한 것일 테지만 이미 문제를 가지고 답을 기다리는 고객의 입장에서선 답답할 뿐이다.

고객은 그 회사는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객이 화를 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노력하는 직원의 성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문제를 제기한 고객도 지금 당장 전화 한통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해당 직원의 친절한 모습을 본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돌아설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개개인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글로써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할 경우,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부정적인 깨진 유리창의 사례만 늘어놓지는 않는다.

깨진 유리창을 잘 수리하여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들려주며 깨진 유리창의 수리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든다. 또 그러한 깨진 유리창을 수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은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들려준다.

디즈니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고객 만족도는 높기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디즈니랜드에도 깨진 유리창이 존재했다.

하루 수 만 명의 고객이 무더운 여름 단 몇 분의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디즈니랜드는 기계에 입장권을 넣으면 예약시간이 찍혀 나오는 패스

트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고객들은 예약된 시간까지 다른 놀이기구를 즐긴 후 다시 돌아와 줄을 서지 않고도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놀이동산을 찾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인 셈이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단골 고객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백화점에서 가장 노른자 자리인 곳에 피아노를 설치하고 피아노 연주를 한다.

보통의 경우 노른자 자리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노른자 자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재능 있는 연주가를 고용하여 많은 돈을 지불하고 피아노를 연주한다.

영업시간 내내 연주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명의 연주가로는 부족하다. 백화점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피아노를 모르는 이들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피아노 말고도 유명한 일화는 또 있다.

“어떤 사람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타이어를 들고 와서 반품을 요구했다. 물론 이 백화점은 타이어는 취급하지 않았지만 반품을 요구 받은 직원은 고객에게 타이어의 가격을 묻고 나서 흔쾌히 환불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책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다들 한 번씩 들어 봤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로 이미 많은 기업들의 표본이 되고 있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좋은 예가 아닐까

싶다.

————— “삼성 하세요?” 또는 “기아 하세요?” 등 기업의 브랜드를 놓고 “○○하세요?”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기업의 이름이 동사로 쓰일 만큼 높은 인지도를 구축한 브랜드도 있다.

————— “구글 하세요?” 바로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 이다.

인터넷 검색을 사용하는데 있어 구글 이나 야후, 다음, 네이버는 검색 속도, 정확도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구글이 세계적인 회사가 된 이유는 바로 작은 깨진 유리창(소수 부적절한 검색이 나열되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수리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보를 검색 했을 때 요청한 검색어를 가진 40억 사이트 이상을 스캔

해 웹사이트를 모두 보여준다. 물론 한정되어 보여 질 수 있지만 고객이 원한다면 아무리 검색 목록이 길다고 해도 전체 목록을 다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노력과 작은 차이가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 없이도 구글을 누구나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놓은 것이다.

—— 우리 주변 모든 일상에는 너무나 많은 깨진 유리창이 존재한다.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 식사를 해결하고자 들어간 식당의 청결상태, 직원의 불친절함, 더럽혀진 화장실, 골목에 꺼져있는 보안등, 한 장의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한 여러 절차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

—— 깨진 유리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고객이다. 우리 모두 깨진 유리창을 지적하는 고객이 될 수도, 지적을 받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그것이 외형적인 건물의 벗겨진 페인트칠 또는 낡은 벽의 균열 등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형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의 질을 논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담당자는 그것이 깨진 유리창 인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 그래서 일까?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무언가 개운하지 않은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런 부류의 도서 성격상 책을 읽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항상 바른 말 뿐이기 때문이다.

바른 생활, 올바른 가치관, 자기 개발과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 뿐 머리로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불편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 그 이유는 첫째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책을 읽는 동안, 단 한순간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을 만큼 책이 재미있고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이고, 둘째로 당장 실천에 옮기지 못하더라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감사담당관 김명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하버드 대학의 명강의는 EBS를 통해 먼저 접한 상황에서 책을 읽게 되었다. 아무래도 작은 글씨의 두꺼운 책보다는 자유롭게 토론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는 TV강의가 이해하기 편했다.

책을 읽던 강의를 보던 정의를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다. 삶이란 인생이란 인간이란 참 아이러니 하게도 맞물려 있어서 누군가에겐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의이기에 선불리 판단 내리고 단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샌델 교수는 끔찍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질문을 한다.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둘 중 한 트랙을 지나가야 하는데 한 트랙에는 인부 한 사람이 일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는 5명의 인부가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1명을 죽임으로써 나머지 5명을 살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까?

기관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명을 죽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견이 전체 주의를 합리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도덕적 원칙에 대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도덕적 원칙에는 결과론적 도덕추론과 정언적 도덕추론이 있는데 결과론적 도덕추론은 '올바른 일, 즉 도덕적인 일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우리 행동이 야기할 결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로 벤담의 공리주의가 결과론적 도덕추론에 해당할 것이다. 결과가 좋으면 도덕적인 것이며 결과가 나쁘면 비도덕적



개인적 도덕이든 정치적 도덕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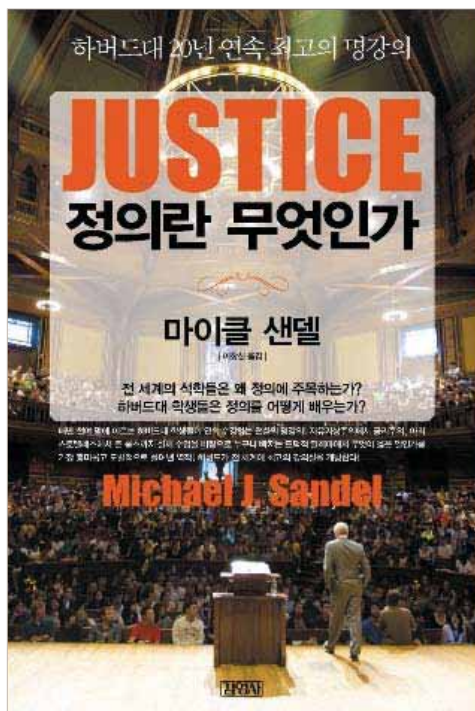
도덕성을 결정하는 최고의 원칙은 공공의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에 반해, 정언적 도덕추론은 결과에 상관 없이 행동 그 자체에 본질적인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해당된다.

다섯명을 살리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을 이야기하는 칸트가 정언적 도덕 추론에 해당하는 학자가 될 것이다.

—————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는 어느 난파선에 관한 내용이다.

브룩스와 더들리, 그리고 스티븐슨과 파커는 배를 타고 항해하다 어느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 더들리와 스티븐슨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파커는



즉 공동체의 행복, 고통을 뺀 쾌락,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란 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고아이고 부양할 가족이 없다. 또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미움까지 샀다고 한다. 남아있던 식량도 바닥이 났고 설상가상으로 병에 걸린 파커를 보며 나머지 선원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어느날 선원들은 파커에게 다가가 누군가를 살인하기로 제비뽑기를 통해 할 예정인데 동참할 것인지 물어본다. 파커는 당연히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직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결국 파커는 죽임을 당하고 선원들은 그의 피와 살을 뜯어 먹었다. 1명이 죽어서 남은 3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만약 파커가 제비뽑기에

동의를 했거나 자신을 죽여도 좋다는 표현을 했다면 어땠을까? 파커가 자신의 죽음을 동의했다면 파커 자신이 순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하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살인은 살인 이므로 나머지 선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죄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반대론자들도 있다.

벤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개인적 도덕이든 정치적 도덕이든, 도덕성을 결정하는 최고의 원칙은 공공의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즉 공동체의 행복, 고통을 뺀 쾌락,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란 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용하는데 금액으로 표시되는 가치를 통해 공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한가지 사례로 필립 모리스에서는 체코에서 담뱃세를 인상 하느냐 마느냐에 따르는 비용/편익 분석을 했다. 담배 판매에 대하여 필립 모리스가 얻을 수 있는 비용은 의료비 상승이며 편익은 담배판매로 인한 조세 수입 증가, 흡연자 조기사망으로 인한 의료비, 연금, 주거비용 등 감소라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 분석의 가장 큰 오류는 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는데도, 필립모리스에서는 비용/편익에서 생명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포드에서도 비슷한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자동차의 안전장치 여부에 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했다.

그러나 포드사는 더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으니 바로 한 사람 목숨 당 20만 달러라는 가치를 매긴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이자

딜레마인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값을 매기는 것이 부당하기에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의 이론은 전부 잘못된 것일까? 진정 사람 목숨을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값을 매길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값을 매길수는 없는 것일까? 하지만 다수의 행복 때문에 소수 의견은 무시되어도 좋은가? 모든 가치를 전부 돈이라는 단일가치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 계산법에 모두가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에 따른 편익이 맞기는 한걸까?

최대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소수의 가치가 다수의 가치보다 항상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론이 뭐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왜 독부러지게

말하지 않는걸까? 라는 조급함도 들었다. 계속되는 찬성과 반대, 옹호와 반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가치 기준을 끊임없이 재정립 하게 한다.

나의 원래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 상황 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갈수록 정의가 무엇인지 답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이 책이 유독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에 대해 저자 마이클 샌델은 '한국이 그동안 경제적 관심과 추구, 집착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

그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고 번영을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적 집착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민주 주의적 성찰을 몰아내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했다고 한다.

샌델 교수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는 않지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어떤 시각과 본질을 어떤 시각을 갖고 봐야 함이 옳은지를 설명해준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는 철학자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나 일상에서 수시로 맞닥뜨리고 있는 실로 중요하고 절실한 물음이다.

자유지상주의와 공리 주의는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가? 기회나 재능이 모든 이 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데 이런 조건 에서 승자가 부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은가? 노력의 기회나 성과 조차도 태어난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것을 진정한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는 행복을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들 수도 없으며,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논의하는 문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돈바위산의 선물

신내2동 이순리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표를 들고, ‘내가 벌써 그렇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8년, 뒤 늦게 시작한 공무원 생활도 어언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 번뇌 없이 평정심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연륜이 생겼나 싶다가도 어느새 일렁이는 맘을 보곤 한다. 그렇게 긍정과 우울을 오가며 그 진동 폭을 줄여 살아오고 있지만 요새 부쩍 고단했다.

—— 고단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을까마는 내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들의 부양의무자를 집중적으로 단속·관리하며 실랑이하는 고달픔이 계속되는 몇 주간, 평소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가사일에도, 아이들의 칭얼거림도 유난히 거슬리는 한주였다.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신랑도 미워지는 한주였다.

—— 유달리 부잡스럽고, 고단한 한주 끝. 잠을 설치 새벽2시에 일어나 앉아, 수많은 잡생각에 잠이 들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잡생각을 몰아낼 요령으로 집어든 책이 [돈 바위산의 선물]이었다.

—— 새벽2시에 읽기 시작해서 출근 준비를 할 때 까지, 늦은 밤의 정서 때문만은 아닌 눈물을 찍어가며 읽었다.

내심 공직사회에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스스로도 일 벌리는 것 싫고, 하던 것만 하면서 그렇게 ‘좀 쉬어가자’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새 나오던 차라 많이 반성하며 읽었다.

또한 저자가 만난 상황, 사람, 환경이 지나쳐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글로써 따뜻하게 되새김 되는 걸 보면서 내 삶속에서도 추억을 끄집어 낼 수 있었다.



————— 저자의 성함은 이성, 한번도 뵈지 못한 분이지만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고맙고 또 고마웠다.

뭐 하시는 분인지, 또 다른 글은 없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저자를 검색해보니 구로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셨다. 기초단체장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섬세한 면모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 글은 제1부 저자의 ‘고백’으로 시작한다. 저자의 여러 고백에 내 상처가 덧 입혀져 아팠지만 특히 부모님께 띄운 사부곡, 사모곡은 곱씹게 된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의 기막힌 설명을 읽어내며 내 어설픈 투정을 반성하고 위로를 받았다. 상처입고 남은 유년의 기억들을 고백하신 글들 속에서 나의 유년의 아픔도 덩달아 반추되어 울었다.

지금은 딸이 대세라 남아선호라는 말이 무색하지만 3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나의 유년시절에도 남아선호는 있었다.

칠남매의 둘째로 바로 밑 남동생만 위하는 엄마를 원망하며 집에서 독립할 수 있기만 바랬던 기억이 있다. 배고픔보다 더한 애정에 대한 굶주림은 날 너무나 더디게 철들게 했었다.

————— 저자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뼈에 사무치도록 깊었지만 화해할 수 있었던 이야기에 자식보다 당신이 우선이셨던 내 아버지가 미워 울고, 성품이 고왔다는 저자의 어머니에 대한 고백에는, 늘 칠남매 양육이 고달팠던 나의 어머니의 거친 악다구니와 비교되어 서럽게 울었다.

그래도 이젠 안다. 내 어머니도 맘 여린 여자라는 걸... 책을 읽으며 난 더 늦기 전에, 내 곁에 계실 때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지 고백해야

겠다고 맘먹었다. 그러면서도 난 아직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

————— 이러저러한 고백 뒤로, 제2부 ‘일터에서’는 29년간 공직생활 중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은 선배님의 글들이 이어졌다. 공무원의 존재이유가 국민을 돕기 위함이라고 굳게 믿고, 좀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초심을 잃어가는 후배에게 술 한잔 권하며 때론 엄하게, 때론 따뜻하게 자신의 경험을 풀어 다독이며 일깨우는 선배님 같으시다.

————— 저자는 공무원을 네 종류로 분류했다. 제일 좋은 공무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한여름 나무 틈 잎사귀 사이로 빛나는 햇살처럼
 눈부신 싱그러움을 지닌 저자를 감히 닮고 싶다’

첫째, 돈 안 받고 해결해주는 공무원
 둘째, 돈 받고 해결해주는 공무원
 셋째, 돈 안 받고 해결 안 해주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을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칭찬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복지부동일 뿐이다)
 넷째, 돈 받고 해결 안 해주는 공무원(이런
 사람도 가끔 있다)

————— 이렇게 분류해 놓으
 시고 선배님은 이렇게 당부하셨다.
 ‘부디 우리나라에 돈 안 받고도 일을 해결
 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공무원이 가득
 하기를 바란다’

처음에 둘째와 셋째에 대한 순위가 바뀐건
 아닌가 하고 가우뚱 하다가 내 자리의
 안위를 위해, 규범과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일침임을 깨달
 았다.

————— 제3부 ‘판생각 댄 소리’
 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들을 모아놓았다. 이 글을 통해서는
 말단 공무원의 눈 높이에서 벗어나 좀더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고, 왜?,
 나라면? 이라는 질문을 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탐구해야 함을 일깨운다.

‘맞아! 나도 그랬는데..’ ‘잠깐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며 저자와 공감하며 내 사고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었다.

————— 제4부 ‘길을 걸으며’는
 저자가 40대 중반, 자녀들과 부모 잃은
 처조카 둘을 데리고 떠난 세계배낭여행일기
 이다. 나는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기록인데 참 재미있다. 구석구석 친절
 하기도 하다. 먼 나라들이 가깝게 느껴지니
 말이다. 저자는 여행을 하며 공무원의 근
 본을 잃지 않는다.

잘사는 나라를 가 볼때도, 유구한 문화를

탐방하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그 국민을 부자 국민, 문화국민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지 공무원으로서 고민하는 흔적이 가득하다.

말단이라 하더라도 나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다 보니 그분의 고민이 반갑고, 참 고마웠다.

————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한여름 나무 틈 잎사귀 사이로 빛나는 햇살처럼 눈부신 싱그러움을 지닌 저자를 감히 닮고 싶다’고 생각하며 책을 덮었다.

내게 남은 복지포인트로 이 책 몇 권 더 구매해서 소중한 공무원 선배님들께 보내드려야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려면 조금 서둘러야 겠다.

꼭 읽어 보시길!! 그래서 이 글을 함께한 독자들이 저자가 말하는 [돈 바위산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시고, 그런 선물을 받기도 그런 선물이 되시기도 바라본다.

대한민국 리더십을 말한다

민원여권과 이재춘

책의 첫 장을 넘기면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책의 저자는 말한다. '대한민국 리더십을 말한다.' 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 책을 반드시 읽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리더이기를 꿈꾸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내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곤 한다.

누구나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말할 때 이건희 회장을 떠올릴 것이다. 각기 이유는 다르겠지만 현재 삼성의 최고 경영자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창업

2세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헌법을 선포하고 삼성의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삼성헌법에서는 '1조의 순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미'를 갖출 것을 호소하고 '법률보다 더 중요한 도덕심'을 배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작년 초 겨울로 기억한다. 삼성의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여 일본의 7대 전자기업의 총 순익보다 2배가 많다는 인터넷 뉴스를 본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높게 평가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실제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비슷한 감정도 느꼈다.

이렇게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삼성의 경제 리더십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삼성 스스로 '존경받는 기업'이 목표라고 한다면 법률보다 도덕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견희 회장은 최근 붙어진 특별사면 등으로 인한 도덕적 문제 제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심기 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세계가 부러워 하는 강소국,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북유럽 발트 해 연안에 있는 국가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최악의 실업률로 침몰 위기에 몰린 유럽의 '문제아'였다. 하지만 지금의 핀란드는 세계적인 기업 노키아와 코네 등 분야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정상급 기업들이 여럿 존재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에 이른다.

노키아라는 회사는 알았지만 핀란드에 있는 줄도 몰랐으니

국가경쟁력, 국가투명성, 범죄율 세계최저, 세계최고의 반부패국가로 인정받는 핀란드가 대단해 보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핀란드가 문제아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 한 것에는 첫째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들이 단결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비가 전액 무료라는 교육 강국의 모습. 셋째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도덕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었다.

야넬리 야텐마키가 총선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취임 58일 만에 실각이 된 이야기, 닷컴 백만장자인 야코리츨라가 속도위반을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에 의거 8700만원의 벌금을 낸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수입까지도 자진 세금신고를 한다는 내용에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있었기에 핀란드가 반부패국가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반대로 리더십의 부재로 흔들리고 있는 필리핀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신을 위해 돈을 몰쓰듯 쓰는 필리핀의 영부인의 관한 글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파문과 관련된 사회지도층들의 뉴스를 접하자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이렇듯 탁월하고 강력한 리더십은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으나 반대로 무능한 리더십은 국가를 최빈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 저자는 ‘리더십은 행복이고 리더는 행복창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행복과 리더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리더가 행복창출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인해 조직원이 행복해지는 것이 곧 조직의 사기와도 직결되어 상승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 일하는 속에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노동이 아닌 노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가치는 그것을 느끼는 당사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백만장자 임에도 자신이 가진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과욕과 탐욕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들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단칸방에 살아도 온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현실에 만족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단칸방에 살게 된다면 화목할 수 있을까? 단칸방이라는 말을 들으니 내가 보았던 일본드라마 중에 ‘야마다타로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난다.

———— 쓰러져가는 단칸방에 몸이 약하고 철없는 엄마와 여섯 명의 동생을 보살피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단칸방에 살아도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보여준다.

물론 가난이라는 설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코믹한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고 작은 웃음과 감동을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이므로 다소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드라마는 가난해도 행복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본정신은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다.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나에게 많은 부분을 접목시켜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지만 역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곤 했다.

—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월세라는 말을 들으니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지금껏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기쁘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부를 즐기는 듯하다.

바로 가수 김장훈씨 이야기다. 결론을 말하자면 행복에 있어서 남들의 시선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 발만 걸쳐

놓은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부와 권력 명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하면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라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이다.

저자는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이 대한민국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부당수령, 횡령 등 수많은 뉴스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범국민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국가중심의 리더십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종은 국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어렵고 이념대립, 양극화 등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며 이것이 악화될 경우 국가의 리더는 물론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비난과 조롱받는 사회로 악화 될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본정신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의 리더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되찾아
눈앞에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보다,
조금은 이익이 덜할지라도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조금 더 큰 의미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발전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술선수범과 자기희생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의 리더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되찾아 눈앞에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보다, 조금은 이익이 덜할지라도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조금 더 큰
의미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발전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지도층에게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국민들 스스로의 시민의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즉 국민들 스스로
셀프 리더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셀프
리더의 부재로는 무질서, 공중도덕 결여,
시민의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친하고 아는 사람에
게는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예로
들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공원에 아무 생각 없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고 담배꽂초를 버리는 수
많은 행위들을 들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일본의 적발
건수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서 부끄러운 일이다.

고위층 인사나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는
것 역시 비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번쯤은 나는 과연 스
스로 셀프 리더의 자질을 갖춘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 스스로 낮은 시
민의식으로 셀프 리더의 자질은 갖추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사회에 드러난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비난하고 있기만 하는 것
은 아닌지 스스로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했다.

———— 저자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며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임을 강조한다. 미국의 기업가 빌게이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빌게이츠를 보며 한번쯤은 누구나 부러워했을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잘 읽지도 않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던 적이 있었다.

그 지인은 웃으며 나에게 빌게이츠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아니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준 적이 있다. 살짝 마음이 상한 나로서는 어이없는 답변에 기분이 좋을 리 만무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기업가 빌게이츠가 바쁠 것 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가 잠들기 전 30분의 시간을 반드시

독서에 할애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빌게이츠는 저자가 말하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며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리더의 좋은 한 예가 아닐까 싶다.

———— 외국에 빌게이츠가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을까? 훌륭한 존경받는 기업인은 많지만 그 중 최근 나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업인이 있다.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팔아 연매출 1200억을 올리는 아딸의 이경수 사장 역시 뛰어난 리더가 아닐까 싶다.

바닥에 떨어뜨린 떡 하나를 주워서 떡볶이를 만들다가 손님이 그것을 보면 그 가게는 떡 한 개로 인해 망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기업가는 지극히 도덕적이어야 하며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경수 사장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 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있으니 아딸의 가맹점이 프렌차이즈 업계 폐업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 이다.

————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 같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은 무수히 많지만 ‘대한민국 리더십을 말한다.’는 리더십의 성공적인 예와 리더십의 실패의 예를 함께 들고 있고 우리의 실상과 더불어 그 속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 이었다.

사실 책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읽기 전에 망설여졌던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 같다.

경청(마음을 얻는 지혜)

건설관리과 김승준

"말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다"

———— 사람을 읽는 기술
(다나베 가츠노리 지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현대사회는 생존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조금이라도
자기를 더 내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이러한
이유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듣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이 구절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경청(마음을 얻는
지혜)이라는 이 책 역시 물질만능의 시대에
젖어든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라고 경종을 울리
고 있다.

———— 주인공 이토벤은
별거중인 아내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악기 회사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이다. 그저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시대 시민의 표상인
것이다.

귀머거리 베토벤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비꼬는 의미로서, 이토벤이라 불리는
주인공은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울인 것
이다. 때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남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토벤인
것이다.

———— 평소 건성으로 알았
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이토벤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던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결정하는 스타일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 증세가 나타나며 쓰러진 그는
뇌졸중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지만, 이대로

경청의 첫걸음은 나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비록, 독선적인 행동으로 직장가 가정 모두에서 소외된 처지의 그였지만, 생의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바이올린 치료 교육을 받고 있는 아들을 위해 직접 바이올린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한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혼이 담긴 바이올린을 통해 아내와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 모른다.

비록 이토벤의 아들 현이가 자폐와 비슷한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어쩔 상대방과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토벤이야 말로 정작 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것은 다른 아닌 내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현대사회에서 내 마음 속에 있는 판단과 선입견을 모두 비워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역시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나의 이야기를 앞세운다는 점일 것이다.

얼핏 보면 대화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짐작하고 호응을 해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마리를 찾아주는 등 성실한 듣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청의 첫 걸음은 나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토벤 역시 청력감퇴로



배우게 된 독순술(구화법)과 바이올린 제작을 통해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비우고 팀원들을 대했고, 그 결과 팀원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

과거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던 그가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들을 준비를 함에 따라 상대방(팀원)이 마음속의 진실을 들려주게 된 것이다.

—————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벗어나 비언어적 제스처나 자세를 관찰하고,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진실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청인 것이다.

즉, 모든 것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을 울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창조적인 공존의 길일 것이다.

나 역시 '경청'이라는 짧은 스토리를 통해 내 삶은 뒤돌아 볼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비록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말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였고, 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내 과거 모습들이 부끄러웠다.

이러한 행동이 내 가족과 내 주변사람들에게서 내 자신을 멀어지게 하거나, 나에 대한 편견 등을 심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과, 진실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내 자신이 밀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는 상호 의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제는 이런 추세는 막을 수 없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과 행동이 아닌 우리 자신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신의 내면 인격의 향기가 묻어나는 진심어린 것이 아닌 얄팍한 처세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런 표리부동(表裏不同)을 바로 감지할 것이며, 우린 상대방과 상호 소통하지 못할 뿐더러 유기적인 관계도 맺지 못할 것이다.

상대방의 진심어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꽉 막혀 있던 귀를 열어 진정한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진정성을 담은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뀔 것이다.

설득의 심리학

의약과 박은정

————— ‘귀가 얇다.’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번덕에 좇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심리변화가 어찌면 설득의 심리학에 놀아 난 것은 아닐까?

————— 글을 읽을수록 그런 의심의 씨앗은 더욱 커져 갔다. 샘플을 받은 상품을 더 사게 되고, 서점 입구에 있는 베스트 셀러는 왠지 모르게 더욱 눈길이 간다. 유명한 연예인이 파는 상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 설득.....그 설득의 심리학은 무엇일까?

1. 상호성의 법칙: 샘플을 받아본 상품은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의 호의를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빛진 만큼 앞으로 언젠가는 빛을 갚을 때가 있을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된다. 그러나 남의 호의가 나의 더 큰 보답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미끼로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 행동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니라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2. 일관성의 법칙: 내가 선택한 상품과 서비스가 최고라고 믿고 싶어한다.

자동화된 일관성은 매우 경제적이고 시기 적절한 행동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과거에 내렸던 결정이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앞에 닥친 모든 일에 대하여 매번, 사사건건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도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다.

3. 사회적 증거의 법칙: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설득의 심리학의 목적이고
저자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일 것이다.

사회적 증거가 제공하는 정보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많은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작된 사회적 증거를 분별해야 한다. 과정상의 오류 또한 점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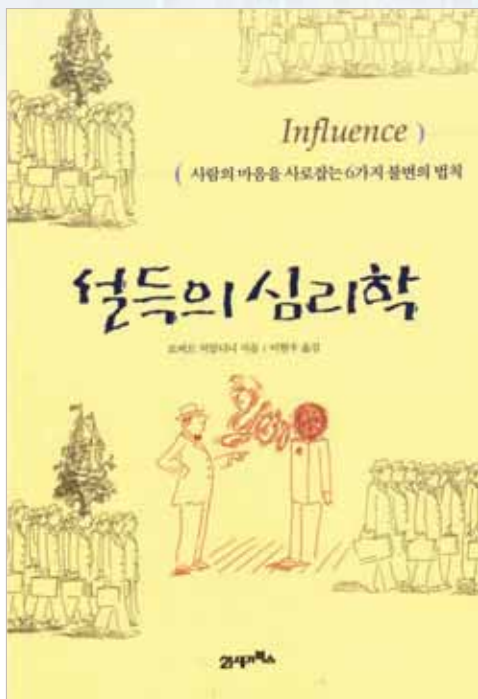
4. 호감의 법칙: 잘 생긴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공정하지 못한 호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호감이 유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우리의 주의를 호감의 원인보다는 효과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호감을 낳게 하는 수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을 일일이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의 불가능한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5. 권위의 법칙: 상 받은 상품, 큰 체구, 높은 직책, 우아한 옷차림에 약하다.

일반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사, 판사, 경영자, 교수들은 남들보다 탁월한 식견과 경륜에 의하여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



서 많은 경우에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

6. 희귀성의 법칙: 한정판매,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에 사람이 몰린다.

희귀성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을 품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막상 희귀성의 압력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 이유는 희귀성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이 이성적 사고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경쟁과 동반한 희귀성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든다.

이제 설득의 심리학을 알았으니 사람들의 심리를 쥐락펴락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도 우린 누군가의 말에 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수긍해야 할 것 같다. 때론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따르거나, 시작할 때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 속에 마냥 끌려 다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넘쳐 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경쟁한다. 하지만 그 정보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설득의 심리학의 목적이고 저자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일 것이다.

———— 하지만 때론 그저 그 사람의 진심을 읽고 싶은 건... 때론 그냥 속아 주고 싶은 건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 집에 가는 길 지하철 모퉁이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에 '이 야채가 다 내가 기른 거야.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 아까 아줌마도 2천원어치 사갔어. 딱 이거 남았네.' 라는 말에 깜빡 속아 사온, 달지도 않고 질기지만 한 시금치.

속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왠지 기분 나쁘지 않다. 꼭꼭 씹어 먹으니 왠지 단 맛이 나는 것도 같고....

————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은 야채 파는 할머니도 알고 계셨나 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목2동 강명경



텔레비전에서 유명 연예인이 “하루에 천원, 한 달에 삼 만원 이면 이 굶주린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를 자주 볼 수 있다. 항상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까지 가난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웠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100%해결 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의 제목에서 지구상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항상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입에

어쩌면 나 역시도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 혼자만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한 인간으로, 중랑구 공무원으로
나 혼자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행동 해야겠다.

달고 살아가는데, 세계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 책의 지은이는 유엔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지구상의 굶주리는 사람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전쟁, 정치권력의 부패,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살인적이고
불합리한 세계경제질서 등을 꼽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 정말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정치권력의
부패였다.

한 나라의 정치권력은 그 나라의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그것들을 실천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외국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올바른 것
을 행하는 정치인들을 살해해서 자국민에게 헤어날 수 없는
빈곤의 굴레를 씌우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났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순간도
내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했던 것이 불합리한 경제구조였다.

기업은 소비가 많이 되는 물건을 판매해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한다.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즉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해 판매하려는 나쁜 기업과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곡식을 재배해 자국민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결합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곡식이 아닌 기업과 정치인에게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농부들에게 정당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아무생각 없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사먹었던 칠레산 포도가 그 나라의 배고픈 사람을 한명 더 만들고 자신의 부만 생각하는 기업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배만 불렀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다.

또한 이처럼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기업을 알아내서 전 세계인들이 불매운동을 해서 잘못에 대한 응징과 올바른 기업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공정무역을 통해 유통되는 농산품을 이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물품이 환경을 파괴하여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일으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에 사막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 조금이나마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 한비아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녀가 긴급구호 팀장으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갔을 때 그곳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어린 아이들이 3초마다 기아로 죽어
가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먹을 밀가루가 없어 아이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인의 창고에는 밀가루가 가득
했다는 상황을 들었다.

상인으로 이윤이 높을 때 물건을 판매
하려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
지만, 인간으로써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버리고 나 혼자 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그 상인이 조금은 안타까웠다.

어쩌면 나 역시도 지금
까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 혼자만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한 인간으로, 중랑구 공무원
으로 나 혼자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행동 해야겠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배고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우아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한다

망우3동 이영기

———— 통찰력 있는 우아함은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빛나는 논쟁거리가 된다. 사람들은 치밀
하게 얽힌 우아함의 숨겨진 조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리고 단숨에 주목한다. 사람들은 매혹
적인 요소에 민감하고 또한 예민하게 반응
한다. 꿀을 잔뜩 머금은 꽃에 물리는 벌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면 우리에게 매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우리는 꿀을 한 움큼
몸에 두른 꽃송이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우아함은 높게 쌓아올린 완벽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아한 것은 매혹적이다.
완벽한 것들은 의외로 큰 문제들을 끌어
안고 있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허점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우아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한다.

———— 작가는 우아함이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동감한다. 가령 값이 비싸고 번쩍번쩍
빛나는 액세서리로 온 몸 전체를 장식했
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아름답거나 우아할까? 아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안 하지만 못한 것이 된다.

위에서 말했던 우아함의 ‘숨겨진 조각’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정의한다. ‘숨겨진
조각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상상
력을 이끌어내는 힘’을 의미한다. 물론,
작가가 책의 서두에서 2,500년이나 지난
노자 사상을 우아함의 예로 들었듯이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새로울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반드시 새로울
필요는 없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란 뭘까,

우아함이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동감한다.

어려우면서도 생소했다. 대개 창조적이라고 하면 독창적인 것이 떠오른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나 자신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영상이 스쳐지나갔다.

이렇게 한참동안이나 헤맨 뒤, 나는 머릿속에서 작은 조각하나를 발견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상상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자신 마음가짐의 태도와 시선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뭐든지 완벽해야하고 잘 해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강박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만 느슨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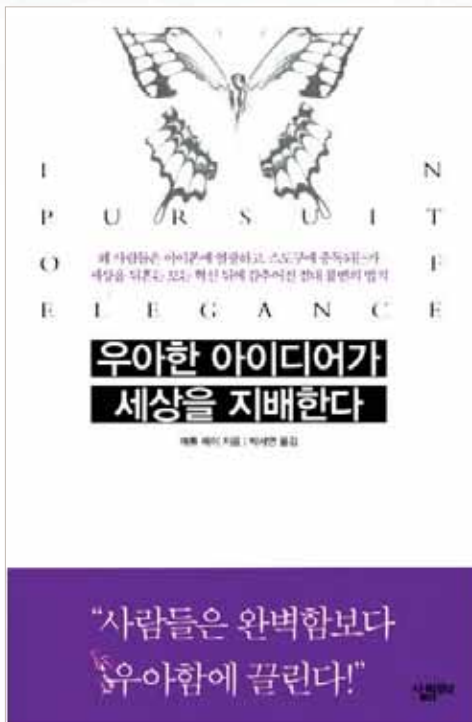
우리 주변엔 서툴지만 감동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듯 완벽함보단 때론 단순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아스러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한 뼘 정도의 틈이 있는 느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린 너무나도 숨가쁘게 내달려왔다. 이제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니, 잠시 멈춰 서서 숨을 내쉴 줄도 알아야 프로다. 또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뒤집어쓴 색안경을 벗어놓아야 한다.

색안경을 벗어놓으면 제각기 모든 것들의 고유한, 아기자기하고 예쁜 냄새와 색감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색안경은 우리들의 코도 막고 있다. 더해서 우리들의 뇌를 조종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조종당하고 있다.

틀에 박힌 생각들과 시선, 관념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헤엄쳐 그 곳을 빠져나오려면 열린 마음과 눈이 필요하다.

————— 이 책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할 수 있다. 우리들은 책 속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끔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작가는 책의 여백, 단어의 자음과 모음, 문장, 심지어는 쪽수까지도 하나하나 자신의 주장을 깃들여 놓았다. 이 책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작가의 말소리를 듣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작가의 말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린다.

우리는 열린 마음과 눈으로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덜어내고 맨 살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맨 몸으로 뛰쳐나가 강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붙들었을 때, 막무가내로 쌓아올려 더하는 완벽함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힘주어

떨어낼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만 뒷걸음질 쳤을 때 비로소, 우아함은 우리를 향해 고개를 치켜들 것이다. 그것도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앞서나가고 있다.

———— 나는 이책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실재 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야하는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간단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는 것, 하는 것 보다 중요한 하지 않음,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하지 않음,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중요한 생략하기, 자연속에 들어 있는 프랙털의 균형미, 우리는 그 우아함의 절대 법칙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2011 중랑 상상대로

발행일 : 2012년 2월

편집인 : 중랑구청 기획홍보과 창의혁신팀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662)

홈페이지 : <http://www.jungnang.seoul.kr>

편집 · 디자인 : 메인기획(02-2268-9126)

2011 ^즈라!
시![!]시![!]로

